

제427회 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8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요청안 ..... 1
2.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 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10시04분)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우선 정은경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때 역시 보건복지위원으로, 당시에 질병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우리 상임위 위원이나 국민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쯤에 언론 보도로 그렇게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정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그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도저히 그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해서 안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질병정보보다 훨씬 많은, 수십 배 예산이지요. 보건복지부 예산,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정책과 법안을 입안할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최소한 질병청장 당시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 한 게 뭐니까? 12월 31일 자 하루 치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무슨 거래 했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다음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자료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아침에 청문시간 직전에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다른 증권사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증권사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합니까? 그렇게 제가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어제라도, 어제 오후라도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랑 약속했지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고 지금 직전에서야 키움증권 발행 주식 거래내역만 제출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장 충격받아야 될 게 마스크입니다. 에프티이앤이 주식 거래내역을 봤는데 신의 손이군요. 매수가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사다가 어찌면 그렇게 공교롭게 가격이 오를 때, 주식 거래 가격이 오를 때만 딱 팔고 또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또 왕창 오르면 다 팔고, 왕창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출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지 않았나 의혹이 큼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키움증권 외의 타 증권사도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셔야 되고, 없으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 전까지는 저는 임하지 못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간사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이 만든 의료대란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물폭탄,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 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김미애 위원 이게 왜 근거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이수진 위원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박주민 감사님……

○이수진 위원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증인은, 오류가 있는 증인들을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감사님, 말씀을 좀 듣고 가야하지요.

○김미애 위원 왜 그렇게 한 입으로 판말을 해요!

○이수진 위원 지난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파행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 그만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감사만 오고 아무도 안 들어와.

○이수진 위원 이제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시한 증인 2명 중……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 거래로 국민적 의혹이 높는데!

○이소영 위원 무슨 국민적 의혹이 높아요?

○이수진 위원 김미애 감사님!

○위원장 박주민 일단 자리에 좀 앉으시고 말씀 좀 듣고 가시지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뭘 내가 앉아서 들어요! 위원님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들었어요?

○이수진 위원 김미애 감사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가 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좀 서십시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주가 올랐을 때 한 번이라도 매도를 했어요?

○백혜련 위원 당당하게 들어오시기부터 하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무슨 당당한 겁니까! 마스크 거래내역 보고도 같은 말을 하세요!

○이소영 위원 웃기고 있네, 진짜.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누가 웃기고 있다고 해요?

○이소영 위원 웃기고 있다고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무슨 웃기는 거예요!

○이소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빙자해서 후보자한테 잘못된 의혹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질병청장이 마스크 주식으로 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수진 위원 그만해 주시고요.

○이소영 위원 이게 무슨 투기예요? 한 주라도 판 게 있어요?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고 하라고요, 보고.

○이소영 위원 매도를 해서 차익을 남겼어야 투기지.

○이수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박주민 지금 타 위원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듣고 또 움직이든지 하세요.

○이수진 위원 제 얘기 듣고 나가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이걸 보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의 손의 질병청장 배우자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일단 말씀 좀 듣고 하시지요.

○이수진 위원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역할을 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국민들이 이걸 보고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수진 위원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 위원의 발언을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 말씀은 제가 못 들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코로나 수혜주에 대한 말씀 하세요.

○이소영 위원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미애 간사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이수진 위원 그래서 따라하시는 겁니까?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지요. 달리해야지요. 지금까지 달리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이수진 위원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의혹을 털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말을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

○이수진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청취 불능)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박주민 지금 뭘 짓 합니까!

○이수진 위원 내란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시하지 않으십니까!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일을 하도록 해 줘야지……

○안상훈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자료가 있어야지 하지요.

(일부 위원 퇴장)

○이수진 위원 자, 자료제출도 제출 기한이 매우 촉박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미애 간사가 얘기한 키움증권, 주식 관련해서 이게 후보자 개인의 주식입니까? 배우자의 주식 거래 아닙니까?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직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내용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언론플레이한 게 누구입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가 고소·고발부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를 흙탕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 검증은 넘는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으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닌 가족을 불모로 여론 호도에만 몰두하고 명백히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내란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잡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본령에 맞게 자리에 착석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전진숙 위원 누구요?

○위원장 박주민 전진숙 위원님.

○서미화 위원 이수진 위원 금방 했는데……

○위원장 박주민 헛갈렸어요.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를 전진숙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에서 내렸던 집중폭우로 인해서 충청도 그리고 호남, 경남 할 것 없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속해 있던 광주도 거의 3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마을 두 곳이 침수를 당해 있고 많은 상가들이 물에 잠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서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이런 시기에 주민들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이 아파할 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의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대한 빨리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좀 되면서 복지부장관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료가 부족하시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보좌관을 통해서 분석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문회를 방해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도 오지 않고 계시는 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신속하게 이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고 제가 지역에 가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빨리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화 위원 저요.

○위원장 박주민 순서상 이주영 위원님이 좀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청문회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국회가 보여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이 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당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청문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주식 거래내역을 자료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직전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후보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감정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워낙 주식의 등락이 심했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처음에 후보 지명이 되셨을 때도 주식 보도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보도로 많이 알려짐으로써 여러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흠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이 후보의 앞으로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또 괜찮은 것은 괜찮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워낙 주식의 등락 폭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해서 혹시 제출 시점 이외에, 빈번한 매수·매도가 있었거나 그 외에 다른 의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불모로 한 행동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실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임하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서 자료제출을 요구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제출하신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시는 이 내용도 저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개되지 않고 옆에 방에서 열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의혹이 국민들 보시기에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검토를 많이, 저희보다 많은 자료가 있으셨을 수 있고 검토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에 대해 자료제출 혹은 미제출에 대해 우리가 대었던 잣대를 그대로 대면서 함께 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더 성실하게, 구체적인 자료 열람 가능하도록 후보께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몇 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들어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것……

○김남희 위원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는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비롯해서 누구도 정은경 후보자의 역량과 헌신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위기 때 최전선에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정은경 후보자의 노고를 추켜세웠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하고 해소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후보자를 무작정 깎아내리다가는 훌륭한 공직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법 14조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거나 적법한 금융·상거래 정보가 누설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검증할 건 검증하면서도 국민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 비전에 대한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료대란이 1년 반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서명옥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듣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서명옥 위원 서명옥입니다.

저희가 후보자에게 메르스와 코로나 시기에 단타 매매 주식 거래한 의혹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나마 오늘 아침 시작 시점에 키움증권 거래내역 하나만 우리한테 던져 주었습니다.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두세 개 더 거래한 증권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배우자가 거래한 전 증권회사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구요.

아침에 던져 주신 키움증권만의 그 거래내역만 봐도 자료가 엄청 방대합니다. 전혀 그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돼서…… 그 의혹을 후보자님께 풀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정회를 해 주시고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요 김미애, 후보님이 제출한 자료도 제가 단편적으로 봤는데 후보자 남편이 에프티이앤이 마스크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코로나 현장에서, 메르스 현장 일선에서 방역활동을 한 같은 동료 의료인입니다. 어떻게 전 국민의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질병청장님의 배우자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거액의 이익을 봤는지 정말 저는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소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맞아요?

○서명옥 위원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명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의 2015년도부터 전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구하고 분석할 시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 자료를 못 봤단 얘기입니다.

○서명옥 위원 자료를 못 봤어요.

○위원장 박주민 남인순 위원님.

지금 여야 번갈아 하고 있으니까요……

○이소영 위원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을 하지 마시구요.

○위원장 박주민 여러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이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님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당면한 의료대란 문제와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에서 사망한 모자 사건 등 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다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선서도 받기 전에 거의 질문에 가까운 얘기들을 국힘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세요. 청문회의 절차는 그래도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미애 간사님도 얘기를 했고 또 서명옥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코로나 관련 주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보시면 에프티이앤이 관련한 것은 2010년부터 보유를 해서 2018년에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한 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주식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공세를 해야 그래도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절차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고 자료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는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갖고 공세부터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제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들어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와 자료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서하고 모두발언 정도 듣고 1시간 정도 정회해서—여야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자료를 좀 분석하신 뒤에 속개하시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들은 진행되면서 계속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저희가 후보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위원장님, 특정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선서 듣고 모두발언까지 듣고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할 때 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건 어떨습니까?

○**최보윤 위원** 선서하기 전에 자료제출……

○**위원장 박주민** 일단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실래요?

○**최보윤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최보윤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정도 듣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 이상 흘러서 최보윤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정도 더 듣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청문위원의

청문을 해야 될 책무 때문입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에프티이앤이, 현 라임의 매도 내역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자료제출을 오늘 8시 반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10시 직전까지 저희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 내용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에프티이앤이는 매수 시점 확인이 불가하고 2018년 이전까지 총 2만 주 매집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 1000주, 2월에 3000주, 3월에 1만 7000주 이렇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3월 7일 마지막 거래로 2만 주 전액이 매도되었습니다.

거래 정지 시점이 3월 21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거래 정지 2주 전에 익절 매도가 아닌가. 이것은 내부거래 의혹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하고 분석을 못 하게 청문회 10분 전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는가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청하는 자료는 에프티이앤이로 얼마를 벌었는지 총 익절 금액의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백종현 의원실의 요구 자료에 보면 키움증권 외에 다른 계좌가 있는가의 질문에서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키움증권 외에 없는 것인지 또 어떤 시점에 없는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후보자의 말을 믿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증거로서 분명히, 이런 다른 증권사의 증권이 없다는 부분은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이 아닌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증권의 자료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후보자님, 제출 가능하면 정리해서, 지금 서명옥 위원님이나 최보운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만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치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안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료가 갑자기 제출돼서 분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5분 살펴보니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김미애 위원** 정말 모욕적입니다.

**○김남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김미애 위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남희 위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김미애 위원** 위원장께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 박주민** 일단 타 위원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발언을 좀 들으시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야당 위원 무시하는 발언이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남희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관후보자로서 직무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왜 이 시간에 제출합니까?

○이수진 위원 아니, 조용히 좀 하시고 들으세요.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의사진행을.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마치 마스크 주식과 관련해서 정은경 후보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김미애 위원 메르스 때도 그 역할을 했지요.

○김남희 위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미애 위원 메르스 때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간사님.

○김남희 위원 이득을 취하게 했는지 여부에 관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미애 위원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요?

○김남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마스크와 관련된 에프티이앤이, 라임 관련된 주식 이것을 보시면 전부 코로나 훨씬 전에 다 매도됐다는 게 나와 있었고요.

○김미애 위원 메르스 때도 있었잖아요, 메르스 때도.

○김남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사고팔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김미애 위원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남희 위원 지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다 배당금 입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식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김남희 위원 예, 보세요. 보십시오.

○김미애 위원 에프티이앤이 있습니까?

○김남희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간사님.

○김남희 위원 그리고 장내 매도, 장내 매수, 결국 주식을 사고판 내역은 1년에 대여섯 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전문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김남희 위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장관 직무수행을 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제한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의혹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김미애 위원 부당한지 아닌지 그러면 제출하면 되잖아요.

○김남희 위원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제가 잘 정리된 것 같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돼서 당황스러운데요. 여당과 야당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청문회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제가 지금 정리해서 후보자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전달했고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위원장 박주민 그리고 또 저희가 비 피해를 입으신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제셔서 좀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될 실질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의 선서하고 모두발언까지 듣고 정회를 하고……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발언 주십시오. 시간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협의를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협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까지 협의 안 되고 일방적이었는데 지금 협의가 됩니까.

○이수진 위원 누가 더 일방적이에요, 협의가 안 된 것은?

○김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1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일단 그러면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선서부터 합시다, 진행을 하고 나서.

○김미애 위원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시작은 하고 해야지요.

○위원장 박주민 이것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모두 다 합의한다고 하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일단 듣고 제가 시간을 봐서 정회를 한 다음에, 그사이에 양당 간사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소병훈 위원 아니, 정회는 무슨…… 간사들 나가서 협의를 하세요, 나가서.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한다든지 확답은 받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주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회 시간은 오전에 급하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 위원 모두 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나머지 요구한 자료도 오전에는 제출해야지요.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시간을 정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시간 텀을 협의해서 좀 정해 주십시오.

○서명욱 위원 아니, 지금 후보자님 앉아 계시니까 후보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미애 위원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 아니, 누가 인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시작도 안 하고 선서도 안 받고 의

사진행발언으로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김미애 위원 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주민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오전 중으로 제출합니까?

○이수진 위원 아니, 그건 협의를 해야지요. 저랑 협의해서 받아야지.

○위원장 박주민 아까 제가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다 정리를 한 바입니다. 그 정리된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미화 위원 김미애 위원이 한 것은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일방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려해서 하고 있으면.

○위원장 박주민 단 하나 제 실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 더 들어 드린 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한 바대로.

순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왜 확답이 없어요?

○서명옥 위원 후보자님한테 확답 받아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수진 위원 뭐가 일방적이야? 나랑 얘기해요.

○서미화 위원 김미애 간사님, 좀 들어 봅시다.

○김미애 위원 오전 중이라도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본인이 발언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주민 자, 양당 간사님들! 지금 후보자가 선서를 하려고 합니다. 선서를 제대로 해야만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김미애 위원 후보자는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선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 이후의 모든 질의응답을 법적 책임하에 무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서 진행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정은경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입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공공 의료의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 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일 것입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에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제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 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 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의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경제적인 번영을 넘어 보다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아까 위원장이 정리한 바대로 자료 검토를 위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신상발언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일단 정회 후 속개 시간은 11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혹시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셔서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신상발언 1분만 하도록 해 주세요.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먼저 좀 하고 신상발언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지금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최근 10년간 후보자·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자료 중 배당소득 세부내역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습니까?

후보자님은 들으셨을 것 같고요.

김미애 간사님 신상발언 1분 하신답니다.

○**김미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후에 이석하려고 할 때 이소영 위원이 ‘웃기고 있네’라고 하셨지요?

○**이소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신상발언은.

○**김미애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발언이 타 위원에게 허용되는 말입니까?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 마이크가 켜진 것도 아니고 위원 개인이 혼잣말을 한 것을……

○**김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가 개인이 혼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공간입니까, 상임위원회장이?

○**이소영 위원**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여러분, 이미 1시간 정도 정회를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김미애 간



사님 신상발언 마치시면 정회한 후에……

○**김미애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그냥 허용되고 넘어갑니까?

○**위원장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시길 얘기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희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선 이수진 간사님 말씀 먼저 듣고.

○**이수진 위원** 오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코로나 영웅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의료대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속히 의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보건 의료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적인 그런 검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책질의를 시작해야 되는 마당에 앞에 피켓을 붙이시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피켓이, 실제로 건너편에 있는 저희 위원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위원들은 그 피켓을 보면서 인사청문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피켓은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인사청문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게도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트북 앞의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해라’ 이것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신상발언으로.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발언을 한 동료 위원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사진행발언하는 국민들에게 ‘웃기고 있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을 꼭 사과하시고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의혹 앞에 당당해야지요.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은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40분에 야당 위원이 소회의실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정

은경 후보께서 오셔서 자료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냐니까 제출했대요. 그러나 그때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확인을 해서 이것저것 출력하는데도 저 혼자만 겨우 몇 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애 의원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주신 에프티이앤이 이 주식 관련해서, 이게 제때 주시면 제대로 주셔야지요. 에프티이앤이가 주식회사 라임으로 상호 변경이 됐지요. 그리고 또 회생 개시결정도 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미리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주셨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그게 왜 웃기는 소리입니까? 자료 요청이 웃기는 소리입니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웃기는 소리면 국회의원이 여기 왜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정도도 안 하고 국민들께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영웅이라는 그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상장 폐지됐다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해서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니까 라임으로 상호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오늘 2016년 것부터 키움증권 거래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7년 2월부터 라임이라는 거래내역이 있어서 이걸 뭐지 하고 보니까 두 개가 같은 거구나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춘 이걸 무슨 숨은그림찾기하고 게임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반드시 후보에게 확답을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일단 이소영 위원님은 어떤 취지이시지요?

○이소영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신상발언입니까?

○이소영 위원 방금 야당 간사님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정은경 후보자에게 저는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유포하시길래, 그러면서 후보자를 모욕하시길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

에탄올이든 키움이든 본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셨다면 당사자인 후보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신의 손, 온갖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검토하고 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헌신적이었던 공직자 한 명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사과하신다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인사청문위원회가 후보자를 모욕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김미애 간사님.

지금 크게……

○김미애 위원 위원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간사님.

○안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뜨거운 상임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일단은,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가 정책질의의 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신상 관련해서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좀 주십사, 그래서 자료 검토해서 소명이 되면 정책질의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소영 위원님도 그러시고 아까 김남희…… 자료 검토 다 해 보니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강하게 요청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접수가 안 되니 저희 간사도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이 청문회가 제대로 정책질의에 집중되려면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는 제대로 좀 제출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여당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이걸 발목잡기 한다는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상호 간에 지나치게 뜨거워진 부분이 있어서 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팻말 관련된 이수진 간사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상임위 청문회 진행된 것 봤더니 과방위 정도에서만 팻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위원장이 팻말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팻말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신 거니까 점심 정회 전까지는 불이시고요. 점심 갔다 와서는 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발언에 대한 사과 부분은 또 다른 사과 요구도 있고 하셔서 다시 한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질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 7분이고요 2차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는데요. 혹시 '1차 질의에 나는 5분 쓰겠다. 그리고 2차 질의에는 대신에 7분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종태 위원님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다른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 없으시면 장종태 위원님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1차

질의 7분, 2차 질의 시간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명옥 위원님, 제가 엄청 존경하는데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명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현장 일선에서 활동한 동료 의료인으로서 팬데믹 시기에 고생하신 정은경 후보자 그동안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보여 준 거짓 해명과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온 국민이 팬데믹의 공포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시기에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코로나19 수혜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 명의로 평창에 땅이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현재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지인 A 씨의 부인 말씀을 직접 들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인께서는 소유권만 바뀌었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은 건 지인 A 씨이고 후보자는 종종 가서 돕는 형태에 불과하였습니다. 실경작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인 것 아시지요, 후보님?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입니다. 지난 2008년 농지와 쌀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당시 복지부차관도 직불금과 농지 부정사용 문제로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후보자님도 당시 복지부에 계셨으니까 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부정수급 문제가 걱정되었는지 후보자 가족은 해당 토지에 직불금 신청은 안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경작자인 지인 A 씨가 2005~2008년까지 또 2012년에도 직불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PPT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온 나라가 직불금 문제로 떠들썩해진 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경작자가 마을 이장에게 직접 가서 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은 공식적인 실경작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 A 씨임이 명백해졌습니다.

후보자님, 왜 거짓으로 답변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실정법 위반이 확실해 보이는데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간의 의혹대로 설마 평창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땅 투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6월 20일 모 언론에서 후보자님의 장관 인사 낙마설을 보도했는데 기

억하시지요? 당시 보도 제목이 “코로나 사령관’, ‘코로나 주식’에 장관후보에서 밀려”라고 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창해에탄올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감염병 관련주에 투자를 하여서 대통령실에서 반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 맞지요, 후보자님?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 실망감을 넘어 저는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의혹이 억울하시다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후보자 가족의 주식 거래내역을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켜겨서 자료제출 거부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문제의 창해에탄올, 2020년—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유행 시기지요—손소독제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코로나 시기에 해당 주식을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2021년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직무 관련 이해충돌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심사청구를 하시거나 주식을 처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나중에 해 주세요.

이외에도 마스크회사 에프티이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에 처분하였는데 이 또한 2019년 상장폐지 전에 사전 정보를 알고 처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씨젠이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회사로 이른바 정은경 테마주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방역에 앞장설 때 속된 말로 대박 난 회사입니다. 2019년 주가가 7262원에서 2022년 8월 코로나 시기에 무려 16만 1926원으로 23배가 뛰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이 이런 코로나 수혜주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후보자는 코로나 시기에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고팔았는지 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4일 신임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마귀다. 하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돈을 벌고 싶으면 기업체로 가야지 공직을 맡아서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팬데믹은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정 후보자가 제시하는 방역지침,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떤 그대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때 또 어떤 수혜 테마주를 사들여 돈벌이 공리를 할까요?

정 후보자님, 복지부의 연간 예산은 후보자가 역임했던 질병청의 100배 이상인 125조입니다. 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감염병 관련 기업 주식 가치는 물론이고 신약 관련한 제약사의 주가, 바이오벤처기업의 상장과 주식 가치, 그 영향력이 어마하기에 복지부의 수장은 어느 부처보다도 공사 구분 확실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혹시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제출은 거부하시고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와 거짓말로 뭉개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소명하지 못할 것이라면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불모로 잡지 마시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주민 후보자님, 답변 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서명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몇 가지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내역은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배당내역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증권 거래를 하는 계좌가 더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키움증권 이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자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오늘 제출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그렇게 하고, 에프티이엔이에 대한 거는 그게 라임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미리 거기다 주를 좀 달아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세부 자료는 작성해서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증권계좌가 더 있느냐라는 건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저희 남편이 80년대 후반기에 봉평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하고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그런 걸 지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명옥 위원 잠깐만, 후보자님 그거는 무려 1660평 이상입니다. 도저히 두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농지의 크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래서 강원도는 보통 4월에서 10월에 농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까지는 논농사를 그 선생님 댁하고 같이 지었고 밭농사와 또 요즘 최근에는 나무 묘목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 가족만으로는 노동력이 어렵고 주요하게 농작업을 해야 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많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현지에 계시는 공동 경작하셨던 분과 또 그분이 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농사지으신 분에게 확인한바 농사는 본인이 다 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주로 보도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은 저희 가족하고 거의 30년간 가족으로 같이 살아서 중요한 작업들은 같이 진행을 했다는……

○서명옥 위원 그런데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가족이라고는……

○위원장 박주민 서명옥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래서 농사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는……

○서명옥 위원 나중에 묻겠는데요. 그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유지한 이유가 뭔지……

○위원장 박주민 서명옥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일단 답변을 드리고 또 질문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추가 시간에서의 답변 여부는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죽 답변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쪽 질문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하라 그래 놓고 답변도 안 들으시고 이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코로나 수혜주 관련해서는 보도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 마스크 이렇게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동일한 회사 이름을 잘못, 의료기기회사로 착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회사와 관련이 없었고 말씀 주신 씨젠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창해에탄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지를 못해서 통상적인 그런 주식 거래를 했고 코로나 관련해서 창해의 주주, 주식이 변동할 때는 단타 매매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세요.

이 장면 기억하시지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고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서도 후보자를 일컬어서 코로나 국민 영웅이다 또 K-방역의 영웅이다,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면서 술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공직자의 모범과 헌신을 보여 준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에는 어깨 골절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스를 한 채로 방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은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박수를 보냈고 또 관련 보건 의료단체에서도 환영 인사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박살 낸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재건하고 의료 갈등을 해소해 달라 하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도 그런 의미에서 정책 검증이 충분히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를 잘 치러서 정말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다시 국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과 또 짜깁기 공세로 후보자를 공격했는데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홍 씨 배우자가 다 경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서 씨가 수년 전에 심은 묘목을 관리하고 예초기로 밭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사일에 익숙하다. 씨 뿌릴 때도 같이 한다. 정 후보자도 코로나19 방역으로 바빴던 시기 등을 제외하면 종종 이곳을 찾았다. 이번 대선 후에도 두 번이나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말씀하신 그 배우자분 가족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그분의 땅과 저희의 땅을 경작을 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통상적으로 농지법에 대한 위반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농지법 위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기를 하거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은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서 농지를 구매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으로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직접 소유한 농지는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실제 농사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그동안 직접 경작을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경작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을 외부인에게 모두 위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은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처분 명령 받은 적은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 후보자 배우자가 또 후보자와 함께 열심히 경작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모든 농작업을 다 저희 가족만 한 게 아니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는 분이 물관리라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저희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농작업 시기에는 가서 꼭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이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시골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혼자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도 전문 농업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경작을 한 것을 그것이 마치 실질 경작을 안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저희가 처음에는 농사가 좀 서툴렀기 때문에 그 동네 어르신한테도 배우고 또 같이 농사지으신 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창해에탄올과 관련된 것이 마치 후보자가, 코로나19의 특혜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017년 7월에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2017년 본부장 취임하면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게 공직윤리업무편람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2020년 9월에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할 때 여기에 대한 대면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저희 감사과가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상의를 했고요, 그때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한 내용은 직무가 바뀌거나 아니면 계약 사항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특혜주라고 얘기하는데 2016년에 소유를 했고, 매입을 했고 실제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실률이 38.5%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혜주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가 창해에탄올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1년에 한 1000주 정도씩 계속 장기 보유했던 주식이었고 아무래도 배당이 있어서 그걸 구매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한 주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시세에 따른 단타 매매나 이런 걸 하지 않았고 또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서영석 위원**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마치 잘못된 어떤 특혜시비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음해를 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정은경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먼저 복지부장관후보로 이렇게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무위원후보자들을 죽 보면서 우리 후보자님처럼 관련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환영의 성명을 내는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서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도,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대한한약사회에서도 그리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도…… 잘 챙기셨다가 이분들이 기대하는 바 충분히 그 직을 해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긍정적인 입장을 낸 단체들이 대부분 의료단체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저는 우선 의료 쪽은 잘하시리라고 보고, 일단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몇 가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날 100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 머지않아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나 돌봄, 의료, 주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체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걸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실지 그리고 노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후보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초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서 제일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문제여서 노인의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화 부분과 또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은 아무래도 돌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잘 알아서 하시고 복지부에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관련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권이나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큼니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은 아직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고 활동지원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산적한데요. 아무래도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장애인도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활동지원에 대한, 확대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또 장애인분들의 수요를 잘 균형 있게 맞출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도 소감문을 통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의 돌봄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요양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 요양인력은 많은데, 사실은 25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극히 소수다. 그리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다른 인력들에 비해서 일단 처우 이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요양인력의 이탈을 막고 장기근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후보자의 생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돌봄체계가 구축되는 데 가장 제약이 그런 돌봄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될 건가라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들이 한 20% 정도만 현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보수나 아니면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삼고 있어서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이라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의견을 듣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탈하는 요양인력들이 가장 먼저 쏘는 게 처우 문제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소병훈 위원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복지부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병 살인이나 간병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정말 간병은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한 명의 중증질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종종 나타나고 그래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있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등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2024년 7월부터 중증수술환자나 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증장애인은 간병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의 부담을 좀 줄이는 데 복지부가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은 또 다른 중증환자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고 또 활동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에 대한 것을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중증환자이면서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 정도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김미애 간사님께서 안상훈 위원님까지는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 자리는 대단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이권 관련해서 엄청난 인허가 통제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관리, 청렴결백 충실해야 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한다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이해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관련해서 후보자님 과거 행적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해충돌 이슈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들 좀 의혹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압니다.

○**안상훈 위원**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창녕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23년에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공동 창업한 그곳에 검진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안상훈 위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들의 경우에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에 더 가중해서 페이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배우자분께서는 창녕 계실 때보다 1.5배 수준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여기로 옮기셨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연봉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안상훈 위원**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거꾸로, 다른 케이스와 전혀 반대로 자택과 가까운 수도권으로 창녕에서 옮기는데 연봉도 1.5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상훈 위원** 배우자 근무하신 병원의 이왕준 공동 창업자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데요. 서울의대 83학번 동기고 학생운동 같이 하셨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전문위원으로 이왕준 이사장이 일을 할 때 후보자님은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것 다 국민들이 기억하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문제 관련해서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당시 본부장 신분이셨던 후보자께서는 ‘확진자 발생한 명지병원 100% 안전하다’라고 꼭 집어서 옹호성 브리핑을 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이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별 병원을 저렇게…… 아마 첫 번째 초기 환자가 입원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 이따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이왕준 이사장 명지병원은 3년간 총 492억에 달하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20년에는 76억 원 적자를 기록하던 병원이 21년에는 190억 흑자로 대폭 전환됩니다. 당시 많은 중소병원들이 이런 흑자 전환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완전 독보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니요, 제가 개별 병원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상훈 위원** 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검사소 사업자로도 선정이 돼서 여기서만 총 217억의 매출을 이 병원이 올립니다.

의혹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에프티이앤이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주셔서 어제까지는 의혹이었지만 의혹이 더 짙어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주지요. 첫 번째 의혹인데요. 이게 배우자께서 상폐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서 가지고 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으면 한 30배인지 100배인지 손해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은 내부정보 없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만약 내부정보 없이 그것을 딱 아셨다면 이것은 거의 신의 경지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또 이게 메르스 관련주인데 메르스 종식 발표 당시 정은경 후보자께서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이셔서 정보 꿰뚫고 계셨는데 종식 발표하기 한 2주 전에 3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사전적으로 이득을 챙기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후보자께서 복지부의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근무했었습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보건산업기술 관련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정보가 많으신 자리지요? 집중된 자리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데 이 분야는 저희하고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세 번째 의혹 관련해서는요 그 직과 관련된 겁니다. 보건산업기술과장 당시 얘기인데요. 2010년 11월 25일에, 외국계 자본인 GE캐피탈이 에프티이앤이에 1000만 달러 투자 발표를 11월 25일 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께서 11월 17일·18일 양일 동안에 주식 1만 3700주를 상당량 매수하셨습니다. 이게 두 분 사이에 이런 정보 교환 없었던 것 확실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보 교환한 적이 없고요.

○**안상훈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옛날 일이지만……

그러면 배우자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같은 의사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는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얘기 안 하십니까, 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당연히 대화를 하지요.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상훈 위원** 보통 사람들은요 집에서 배우자하고 전문가로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신에 의혹 살 만한 주식은 안 갖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얻은 내부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 세 번째, 창해에탄올 이게 코로나 관련주인지 전혀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배우자께서 모르셨을 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 네 번째는 하림이라고 닭고기회사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급락하고 반대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급등하는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관련이 있는 주식인데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파시면서 이것으로 이득을 취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세부적인 주식 거래내역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런데 배우자께서는 굉장히 회한하게 다 알고 매수·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 정보는 농림부가 소관하는 정보이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항상 발생 경보를 내기 때문에……

○**안상훈 위원** 하지만 국민들 알기 전에 질병청에 먼저 통보가 되고 그것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 정보를 내부적으로 소통하지 않고요. 그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그러면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배우자를 너무 잘 만나신 게……

○**위원장대리 이수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 주식 귀재시고 농사의 귀재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경란 전 청장 마지막 물러나실 때 얘기 아시지요? 그때 상황하고 비교

하면 그때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자료 관련해 가지고 왓가왓부가 엄청 많았고 야당 공세 끝에 자진사퇴를 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자료도 불충분하게 내시고……

○위원장대리 이수진 안상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여대야소 상황에서 쉽게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본인 명예를 위해서 백경란 청장처럼 자진사퇴하실 용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 그동안 제가 시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이수진 1차 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했다가……

○최보윤 위원 저 자료 요구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좀 중요한 자료여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예, 그러면 1분 안에 부탁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병관리청 신설 후에 인사혁신처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협의했다고 오늘 방금 발언을 처음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경로로 당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셨는지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우리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이수진 더 추가적으로? 말씀 다 못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오후에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이수진 발언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명지병원 관련된 것은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명지병원의 수입이나 취업에 관련해서는 전혀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 없었다라는 말씀 명백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취업한 병원은 이왕준 이사장이 거의 종결을 하고 나가서 정리가 된 병원이고 후임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명지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에 대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정보들은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해 관련해서도 만약에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단타 매매를 해서 그때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출해 드린 주식 내역을 보시면 그 주식의 시가가 변동했을 시기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라갔던 시



기가 2020년 3월이던데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예, 잘 들었습니다.

1차 질의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상훈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야당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럴듯한 말로 의혹을 만들어 내서 한 명의 헌신적인 공직자를 모욕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오전에 자꾸 야당에서 주식 관련 자료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식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치만 주식 거래내역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키움증권 외에 다른 계좌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전에 물으셨고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 말씀하셨는데 확인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거래했던 증권계좌가 하나 있어서 거래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재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분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주변에 개업의 동기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씩 버는 동안 보건복지부에 들어와서 31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소영 위원 공직생활 25년 차가 넘은 시점에 차관급 질병관리청장이 됐는데 그때 급여가 1년 차 전문의 남짓이나 될까 싶습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오셨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왜 돈 많이 버는 의사 대신에 공공정책 다루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사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보건의료정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후보자가 정말로 지금까지 사회에 헌신적으로 또 무해하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이 자리가 국회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하림 주식을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는데 하림은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주다, 후보자가 질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보를 줘서 매수하고 매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 거래내역을 보니까요 배우자 분이 하림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딱 다섯 번이고 매도한 것은 2021년에 딱 두 번,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 아직 뉴스에 나오기도 전에 후보자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 사실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후보자 재직 시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2020년 11월인데요. 코로나로 정신없던 후보자가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 11월 전후로 해서 주식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후보자 재직 시절에 2019년 9월에 발생했는데요. 후보자가 하림 주식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으로 훨씬 이전이고 발병한 시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2021년에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말하자면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질병들하고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단어를 갖다 붙여 가지고 마치 어떤 내부자거래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멸뽕한 공직자한테 오명을 씌우고 정상적인 주식 매도를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과연 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림 주식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질병청하고 연관이 없는 질병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 말씀 듣고 확인을 해 봤더니 매도했던 시점은 2021년 6월 16일 하루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전혀 없었고 질병청에도 통보된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때 농림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5월 11일 날 심각단계를 오히려 관심단계로 낮추는 상황이어서 여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매도 시기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봐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에프티이앤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노섬유를 취급하는 기업이고 미세먼지 차단망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것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관련자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샀다 팔았다 한 것 아니냐라는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이해상충을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이 자의

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인사혁신처가 공직자가 보유한, 가족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소영 위원** 이 주식 관련해서 2017년에 인사혁신처가 심사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2017년에 직무관련성 심사받았고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주식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재산신고를 제대로 했고 인사혁신처가 법령에 따라서 심사를 했는데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지금 국민 15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법률에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마치 불법이고 굉장히 죄악시되는 일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후보자께서 보건산업과장을 할 때 에프티이앤이가 보건산업과 관련해서 무슨 혜택을 본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이나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도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그때 투자했던 것은 가스터빈 필터미디어를 납품하는 투자라고 보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는 보건산업기술과장에 재직을 했지만 에프티이앤이하고 산업 분야나 연구 분야가 전혀 아닌 분야이고 국가 R&D 지원 이력이 없음을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코로나 방역 사령관으로서 후보자의 헌신은 많은 국민께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이미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창해에탄올 주식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최보운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해야 돼서 이 부분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에 장관후보로 검증을 받았지만 남편 문제로 낙마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민추천제 형식을 통해 다시 지명이 됐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시다 보니 국민을 내세운 코드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은 댓글의 순서로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과정 하나하나가 신뢰를 얻는 절차여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대형병원 간호병동은 감염취약구역으로 분류돼서 가족조차 PCR 음성확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장이셨던 후보자께서는 그 방역지침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예외 없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보윤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방문해서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 잘 안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운 뒤 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은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가족 면회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보윤 위원** 당시 방역 수장으로서 강선우 의원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를 봤는데 그게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침을 누구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그러면 그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언행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보윤 위원**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면회 원칙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켰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윤 위원**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셨다면 혹시 유감을 표명할 의향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것은 제가 유감을 표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보윤 위원** 그러면 유감 표명은 안 하신 걸로 생각하고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주식 부분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을 때 국민은 불안에 떨며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 뒤에서 누군가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겠습니까?

당시 후보자께서 매일 브리핑에 나서서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자가진단하십시오’ 일상 제한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후보자의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국민은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던 후보자, 남편은 ‘팬데믹 개미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보윤 위원** 특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그 시기에 도 주식을 사 모았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2020년 10월 1000주, 2021년 7월에는 132주, 총 1436만 5000원을 매수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남편의 거래를 도운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후보자는 코로나 시기에 손소독제 관련주인지 몰랐다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는 코로나 테마주로 큰 관심을 받은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7년 당시 창해에탄올은 술 만드는 주정회사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때 소독용 알코올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소독제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술 만드는 회사가 손소독제 회사로 바뀌는 방역 정보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스크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자 동향을 총괄한 후보자는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손소독제 관련주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남편이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직무관련성 심사라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복지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게 되고요,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윤 위원** 그렇지요? 직무관련성 부분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남편이 보유한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2017년에 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2020년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후에 창해에탄올 주식 심사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최보윤 위원** 제가 오전에 인사혁신처 협의하신 부분 있다고 하셔서 자료제출을 오후 질의 전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제출 아직 안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인사혁신처 협의 받으셨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변경되거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같은 조직개편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기관이고 질병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직·예산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 위반이 됩니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

조의8에 따라 보유 주식의 업종이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재심사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업종이 바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번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방역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다면 후보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후보자부터 그렇지 않으신데 해당 공무원이 그 조치에 수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질문을 주신 건가요?

○**최보윤 위원** 예,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안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실 상황이고 관련된 부분에서 인사혁신처의 자료나 이런 법령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위반이 된다고 확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은 따갑게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해에탄올이 손소독제에 진출한 것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나 농사 관련해서 열심히 농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해 주식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가장 어렵고 저희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을 저나 남편이나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뭔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특히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른 다음에 팔았어야지 그게 맞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단기 단타로 매매를 해서 이익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2020년 10월경에 추가 구매를 통상적인 거래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업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무 관련 심사 관련해서는 청이 개청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면서 주식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것을 인사혁신처하고 실무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청으로 조직은 바뀌었지만 직무가 변경되지는 않았고 또 새로운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종이 바뀌었는데도 재심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저나 아니면 저희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최보윤 위원 아직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주민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보윤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그 부분 추가로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정보는 알고 있고요, 아직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보윤 위원 경찰로부터 연락받으셨는지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연락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장종태 위원님, 이번에 5분만 질의하시는 거지요?

○장종태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 지명을 받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말 역대급으로 수많은 환영 성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혹시 환영 성명에 대해서 사전 로비를 하신 건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렇지는 않고 아마 의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아직 띄워지지 않았는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협, 대전협.....

전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의대협, 의대교수협, 약사회, 간협, 간무협, 한약사회, 소청병원협,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로부터 환영 성명을 받는 이례적인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후보자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것은 과거 후보자께서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보여 주신 리더십과 신뢰가 대단히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보건복지 현안을 후보자께서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잘 풀어 나가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정말 많이, 어쩌면 청장 시절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많은 환영 성명을 보신 후보자의 마음과 각오를 가급적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1년 5개월 동안 지속됐던 의정 갈등과 의료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책임감과 사명감

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후보자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역할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잠실 야구장에서 집중 유세에 참여하느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보건의료 수업 진행에 소홀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괄선대위원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당 인사명령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선대위에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보좌진이 해당 일정을 확인했더니 후보자님은 잠실 유세 일정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소화하고 4시 6분에 이동 차량에 탑승하여 4시 50분경에 혜화동 연구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장종태 위원** 화면이 계속 안 뜨는데, 저희 중앙당 공보국에서 언론사에 사전에 공지한 일정에도 15시 20분으로 분명히 공지가 됐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후보자님, 이런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의혹들은 의혹일 뿐인데 마치 사실인 것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포장해서 계속 얘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또 명확하게 설명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기된 의혹 중에서 손소독제 관련 창해에탄올에 대한 것도 배우자께서 16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지금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주가 평가를 보면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질병청장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고 그 정보를 통해 수입을 해서 주가를 관리하는 것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선거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활동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학원 강의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와 학부 강의는 최우선으로 일정대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창해에탄올 주식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추가 구매가 있었지만 그 추가 구매 시기를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가 변동했던 시기를 한참 지나서 일상적인, 통상적인 거래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거나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이신데요, 권성동 위원님 연락이 안 되신다는데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권성동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면 되겠어요? 저희 쪽에 아무런 내용이 전달된 바가 없어요.

○**김미애 위원** 한지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권성동 위원님은 일단 순서에서 빼고 그렇게 되면 전진숙 위원님을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리면 전체 순서가 다 뒤바뀌어서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님만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를 전진숙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난데없는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리고 지혜로웠던 국민들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정은경 후보자를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호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가 불통으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국민에게 남아 있고 아직도 그 의료대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방역의 리더자로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 왔던 정은경 후보자가 위기대응 능력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료대란을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국민들이 호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말고 후보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분께서, 아마 정은경 청장 시절에 박사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위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해서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과장 이상이 상가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늘 봐 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하고 싶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명지병원과 관련해서 오전에 ‘확진자 발생 명지병원이 100% 안전하다고 옹호성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까 질문 주셔서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2020년 1월 26일 날 세 번째 확진환자 생겼을 때 브리핑이었고 기자가 ‘환자가 명지병원에 입원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안전성이 철저하고 음압이 보장되어 있고 의료진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00% 안전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것이 명지병원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에프티이앤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했던 에프티이앤이 주식과 관련해서 2017년 10월 인사처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다고 계속 답변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본부장 취임하면서 받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왔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전량 매도한 것도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전량 매도해서 코로나하고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당시 2018년 2월에 주식가격이 굉장히 상승함에 따라서 공매도 과열 금지라고 하는 공지가 나왔었습니다. 그 공지가 나오면서 매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의 형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일반적인,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매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전진숙 위원 공매도 과열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식을 많이 파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창해에탄올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TV에서,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그 시기에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머리에 염색할 시간, 딱 30분이면 되는 그 시간도 찾지 못해서 머리가 계속 하얗게 변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한가하게 질병청장이 주식을 들여다보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가면서 주식을 들여다보고 주식을 팔고 사고 이런 매매행위를 할 정도로 한가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거의 가족을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남편과 같이 더불어서 주식을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부부가 그런 커뮤니케이션할 정도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 남편은 아내가 공직자여서 바이오나 이런 관련된 주식은 전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직장에 대한 일이나 주식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백경란 전 질병청장의 주식 보유 논란을 언급하면서 자진사퇴 의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백경란 전 질병청장은 직무 관련 주식이었고 후보자는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직무관련성은 없다라고 받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없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도 백 청장은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아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2017년에 받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나중에서야 알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은 백 전 청장은 거부했지만 후보자는 배우자와 협의해서 지금 제출했지요? 저는 사안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배우자 동의를 받아서 제출드렸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걸 회피하거나 자료제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더 낳게 하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님,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고 발생 즉시 지자체나 언론을 통해 당일 또는 익일에 빠르게 공개되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병 특성상 지역 간 이동중지 명령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런 건 누구나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공공의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개 정보를 두고 내부정보 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후보자께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하림 주식 관련해서 매도한 시점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발생 정보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억측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해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전진숙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정은경 후보자님, 현재 후보자님의 신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때 헌신적인 모습으로 알려지셔서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농지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정은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칙과 또 검소함 이런 것들을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직접 후보와 배우자분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또 농사는 배우자와 후보자가 주로 하시고 지인들은 도와줬다라고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

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시기 때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한지아 위원** 농지법상으로 제가 알기로 90일 이상 농작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식……

이거는 단순 계산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아침에 4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짓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경황이 없었으니까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7월이지요. 그러면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될 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은 현재 인천에 근무하고 계시고 아침에는 전화도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고, 현재는 인천이었지만 그 전에는 경남 창녕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평창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매일 가서 짓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아마 주말에만 가셨을 거라고 생각, 그것도 주말 매주 가셨을 거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한다면 56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뭐 반올림해서 60일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90일이 안 됩니다. 설사 지금 90일이 넘는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넘는다면. 하지만 법 취지에는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은경 브랜드, 원칙을 벗어나는 편법과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알고 있는 정은경 브랜드에 어긋나고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자경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창녕에 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또 요양병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때는 농사를 제대로 짓기는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

○**한지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0일이 넘건 안 넘었건 그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이 주소득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탈감을 농민들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의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은경 브랜드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거래 관련해서도 몇 가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주식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언론에 보도

된 창해에탄을 말고 다른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없습니다. 에프티이앤이는 마스크 관련이라고 하지만 공업용 마스크라고 들었는데 제가 세부사업, 회사의 사업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18년에 이미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정리해 주셨지요.

창해에탄을 주식으로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창해에탄을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배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배당은 받았습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은경 브랜드가 상징했던 것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몰랐어도 장관후보자시니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사과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창해에탄을 보유 관련해서 21년도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협의 내용과 문서 제출을, 협의 내용을 감사원과 다 하셨다고 아까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인사혁신처요.

○**한지아 위원**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문서를 제출해 주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금 질병관리청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제출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청문회 날짜까지 기다릴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들께서는 실망할 수 있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명, 해명과 소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해명은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소명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해명은 변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소명은 분명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 차원에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2020년 3월 25일 전 코로나 진단키트 주식을 매매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없습니다.

○**한지아 위원** 주식 투자 의혹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거래내역만 제출하시면 쉽게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시간을 끌고 아침에 메일을 보내시고 그 과정 또한 정은경 브랜드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치적 술수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농지법에 대한 부분, 이게 위반이든 아니든 간에,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소명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술수, 기술 이런 부분들은 후보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와 소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농지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98년도부터 27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많이 일을 했고 저를 포함해

서 가족들이 참여를 했고 그것으로만으로도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 지인도 남편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이웃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공동으로 경작을 해 왔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해에탄을 관련해서는 당시에 그게 손소독제 사업에 진출했다는 정보를 알았으면 필요한 조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어쨌든 그래도 고의성이 없지만 그런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해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나 거래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얼굴 뵈니까 코로나 3년 동안 행정에서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또 저는 그 시기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선택들을 계속 내리셨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무거운 경험 자체로도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하시기에 참 우리가 기대하는 소양을 충분히 갖추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 다만 저도 후보님의 진정성을 충분히 신뢰하고 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다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한 자료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배우자분께서 연락이 아직 닿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마 미비한 것 같은데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혹시 되시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란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는 국민들의 복지, 특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또 그런 차별 없이 격차 없이 건강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가 저희 조직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안들은 많이 있어서, 의료 정상화라거나 아니면 돌봄에 대한 준비라거나 아니면 기초생계수급자들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기본사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행 방안이나 혹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의료·방역의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되신다면 복지 영역에서도 아주 깊이 관여를 하게 되실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 기조도 그렇고 본인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대부분의 공약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

약일 텐데 문제는……

○**이주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문제는 대부분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지 공약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공약은 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지금 재정에 대한 말씀을 후보님께서도 하셨듯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 앞에 좀 투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지금 건강보험 장기 추계의 경우에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건보공단, 기재부, 국회예정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올해부터 바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간병비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 이 지출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지금 나오는 추계로는 적어도 연간 2조 이상, 맥시멈으로는 연간 15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줄이려면 결국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지출 전체의, 요양병원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간병비를 국가가 지금처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의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어서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의료적 필요도와 치료할 수 있는 역량부터 하고 구조조정을 좀 하겠다는 얘기로……

○**이주영 위원** 다음 자료 보시면, 증가·감소 있는 것 보시면, 지금 현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그런데 이거 전 정부에서도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했고, 불법개설기관이나 부적정 청구도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국고 지원은 지금 수년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간병비 정도의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의 대책은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주기적 약가 재평가 등을 통한 약가 관리 합리화하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약품 품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희귀약품 관련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벤토린도 없는 마당에 무슨 희귀약품이냐’, 현장의 자조적인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보시면, 계속 이렇게 생산·수입·공급이 다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이상 무임승차 국가로서, 함께 협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편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MFN 정책까지 한다면 첫 번째, 이 주기적인 약가 재평가나 약가 관리 합리화, 급여기준 재평가가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주고 싶었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필수약들이 다 품질이 되고 우리나라 제약업체도 굉장히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벽에 봉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의 많은 공약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후보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에 공감합니다.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려야 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되는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국정위나 재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약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체네티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약에도 수급 불안한 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공적 공급하는 체계를 포함해서, 식약처를 포함해서 이런 공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안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대안이 당연히 아직 없으실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뭔가 정부 정책이 현재 보기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때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과감한 브레이크를 걸어 주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이수진 간사님이 갑자기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해서.....

○이수진 위원 아까 저희가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앞에 피켓을 붙이셨는데 점심때 때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붙이고 계셔서 때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오전의 질의 중에 자료화면에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의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나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러는 분이실 정도로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혹여 언론에 돌아다니거나 이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역량이라든지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미 한 번 화면이 나가는 했으나 앞으로 자료를 활용하실 때도 그렇고 이미 나간 것도 언론에서는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후보자의 남편분은 정치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또는 관례대로라면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아마 여기 방송을 보시는 언론 분들도 그런 것에 주의해서 그 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피켓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김미애 위원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대 때 같이 일을 했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장에서 누구도 지금 후보자에게 반대, 지금처럼 이런 목소리를 낸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의혹 제기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발의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100배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복지부장관후보자가기 때문에 그 의혹을 야당 위원은 해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던 건데 저희들을 일부러 골탕 먹일 의도가 아니라면, 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랑 약속했고 월요일 오전 중에 오늘 오전에 주실 자료 정도는 제출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안 했을 텐데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야당 위원들 사전 미팅하는 그때 오셔서 가지고 9시 40분경에 ‘자료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각 의원실에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에. 어떻

게 국회의원이 그것만 눈 빠지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분석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런 의혹을 해소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 목소리, 그러면 저희들은 대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키움증권 거래내역만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는 다른 증권사도 있는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언론사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증권사 것도 ‘거래내역 없음’ 그렇게 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날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게 제출되면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디 별것 아닌 걸로, 의혹을 해소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좀 이따가 정회를 하면 그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별것 아닌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의 정보다 보니까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증권계좌가 또 있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뭐가 확인된 게 있어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배우자가 증권회사에 직접 가서, 본인이 와야지 해 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아마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회하고 확인되면 우리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서미화 위원님이 김남희 위원 대신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서미화 위원** 제 순서라고요?

○**위원장 박주민** 예.

그래서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정은경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께 코로나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당시에 머리가 새하얗게 다 세도록 헌신을 해서 국민들을 지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님과 함께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은경 후보자님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또 소통을 너무 잘하시는 리더라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한다는 것은 리더에게 당연한 덕목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소통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이끄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코로나 영웅이라는 그런 말씀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이긴 것은 의료인과 또 지자체 공무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방역 당국을 신뢰해 주시고 또 방역 당국의 조치에 같이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미화 위원 후보자님께서서는 누구도 겪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헌신한 그 책임은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제출된 자료 그리고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저는 해소가 됐고요.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이고 또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억지스러운 의혹으로 흠집 내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서미화 위원 부처 간 칸막이와 이원화된 전달체계 때문에 장애인 복지제도가 당사자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맞춤형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제도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인 국가장애전략이 반드시 수립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권리보장법 제정 관련해서는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성을 좀 보고 국회에 입법하는 것들을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장애전략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는 장애인종합계획과 정합성을 좀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더 큰 방향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많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W진병원 사망사건 그리고 태연재활원 학대사건 알고 계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태연재활원 사건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미화 위원 감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인권침해와 학대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 참사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 왔고요. 지역사회 중심의 탈원화·탈시설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고 생명과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은 재발되지 않게끔 내외부 모니터링이나 감시 그리고 각종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PPT 좀 봐 주시면요.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 참사 이후에 복지부가 50인 이상 시설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6월 말까지 중간보고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청문회 종료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현재 울산시는 태연재활원에서 중대한 학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이 운영 중이거든요.

시설에서 장애인을 질질 끌고 다니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가 일상으로 보이는 이 시설에서요 한 달간 무려 500건 이상의 학대가 이루어졌고 명백하게 CC카메라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중대한 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장관 임명받으시면 이런 제도 정비도 좀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어떤 처분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처분이 적절한 수위인지 검토해 보고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하고 아마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국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시설 외에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활동지원·주간활동·지원주택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잘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인프라나 지원 방안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현재 지역에서 장애인학대 사건 대응을 하는 곳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그런데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장애인학대 대응해서 72시간 골든타임에 조사를 하는, 착수하는 수준이 50%에 밑돌고 있고요. 평균 이동시간도 126시간이 넘고 있고 전남하고 경북은 이동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대로는 학대 발생 시에 골든타임도 다 놓치고요 재발 방지 대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적극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말씀하신 대로 17개 지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간도 늦고 골든타임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조사 인력도 보강하고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전남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더 이상 안 필요합니다. PPT를 보시면 정말 심각한데요. 공보의가 급감했고 또 목포와 신안 임산부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전공의들이 수도권과 인기 과에만 복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전남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가 다 공백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공약, 전남 지역 공약 최우선 순위로 전남 국립의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전남도민도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국립의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시면 이 공약 이행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 들어갔고 또 국정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의대 신설에 대한 거는 복지부 소관은 아닌 상황이지만 교육부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미화 위원** 아니, 정원 배정은 복지부 소관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 복지부가 담당하겠고요, 대학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랑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미화 위원** 이미 교육부에 통합의대 부분이 제출이 돼 있고요,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게 하루라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 되시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후보자님,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야당의 구체적인 근거 없는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차분히 잘 설명, 소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창해에탄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소주를 제조하는 주정 업체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2016년 10월에 처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전에, 현재 5000주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것의 한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코로나 이전에 매입하셨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코로나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시지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20년 2월에 창해에탄올 주가가, 사업 목적에 손소독제 생산을 추가하기 전에 매입해서 오른 다음에 팔았어야 하는데 20년 이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2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짝 오르내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8개월이나 있다가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매입이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거를 저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후보자께서 소명하셨듯이 이 창해에탄올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셨다는 것 역시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창해에탄올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시지요.

직무관련성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시지요, 다음.

그리고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창해에탄올 주식을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희가 식약처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 결과 창해에탄올이 손소독제를 생산하려고 하면 의약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의약품 제조업체로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해에탄올이 손소독제를 생산한 적도 없고 저희가 2024년 창해에탄올의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 생산한 주정의 99%가 주류회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소독제회사로 가서 돈을 벌어야 이게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고 할 수 있지 이 회사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발생한 시기에 잠깐 사업 목적에 손소독제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걸 가지고 이게 코로나 관련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에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만 국민들은 그리고 의료계는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대란을 해결할 책임자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그런 중장기 개편방안 안에서 인력정책도 같이 봐야 되고 또 그것도 과학적인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의료개혁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개혁방안을 내놓고 일주일 뒤에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서 국민들은 또 의료계는 어떤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의대 정원 문제의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정부가 국민들과 환자들과 또 의료 현장에 있는 다양한 의료인들과 조금 더 잘 소통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지금과 같은 1년 5개월이 넘는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그러면 이 깨어진 신뢰를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킬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조금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과 또 국민, 환자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일단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이 제도 개편을 하는, 그런 정책화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김윤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중요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약이 의료개혁 중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또 장기적인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공약을 어떻게 언제 실행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개혁방안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이해당사자간에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첨예한 갈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론화와 정책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성공적인 K-방역을 이끌었던 우리 후보자가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축하드리면서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앞서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볼까 싶습니다.

우선은 평창의 농지 관련해서 가족들이 27년간 농사를 지어 오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긴 했지만 굉장히 농사를 지으시려고 참 가족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장관이 되시면 농사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하는데요.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배우자님과 잘 상의하셔서, 여러 가지 위탁 경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잘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관련한 부분도 죽 들여다보니까 직무관련성 심사도 계속 받으시고 했는데 이후에 장관이 되시면 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받고 나시면 문제가 있다, 직무관련성 있다 그러면 다 정리하실 수…… 배우자랑 상의해서 또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것은 상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걱정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후보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원칙을 지키고 또 청렴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번에 아마 장관으로 지명이 되시면서, 사실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의정 갈등,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다섯 가지 의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보시면 그 다섯 가지 과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일은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시급한 것은 의료 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력이나 조직이나 사업 등을 점검하는 게 두 번째로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관련해서도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생보자에 대한 급여 기준이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바로 중생보가 열리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챙겨 볼 예정입니다.

○**남인순 위원** 현재 현황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모자 사망사건이 있어서 참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거의 긴급복지도, 한 3개월 정도 긴급복지를 받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보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시다. 아마 그것이 기준 중위소득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리고 의대, 의료대란 관련해서 우선은 학생들은 돌아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계엄 과정에서 전공의를 처단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전공의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런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즉각적인 역할 어떤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그런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공



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수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고요.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직접 코로나 현장을 진두지휘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거점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회복기에 대한 지원이 좀 부실해서 지방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여전히 지금 적자에, 경영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36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이 15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6월 달 급여조차 못 주고 있는 데가 4개 지방의료원, 부산·속초·청주·강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기 때, 코로나 때 병상을 비워 가면서 노력했던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코로나 때 공공병원이 초기에 코로나 환자를 대부분 격리치료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으로 본 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체계의 큰 축으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을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단순한 그런 공공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중진료권, 진료권 내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과 시설과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시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이 가정의학이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제시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분들의 의료가 많이 늘어났는데 약은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시는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굉장히 더 고통받는 그런 일도 있고 어느 병원을 가셔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의사가 제대로 된 조정과 지속적인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게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좀 더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우선 질의 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피해 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 지원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주말 동안도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더욱 걱정인데요. 빠르게 피해 복구될 수 있도록 다 각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이렇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계속해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여당 위원님들이 계속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말씀 하시면서도 굉장히 피곤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괜찮습니다.

○김예지 위원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지 위원 식사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점심 간단히 했습니다.

○김예지 위원 소화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농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설마 이것을 직접 경영하셨을까라는 것을……

저희 사진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웃사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을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우리의 전통 미덕과 같은 것인데 여기 평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작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되어 있고 고라니나 또 산에서 사는 동물들을 막기 위한 그런 준비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경작을 하고 계셔서 배우자가 공직자셨기도 하고 그러시니까—그 배우자라고 함은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십니다—설마 이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하시지는 않았을까 하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는데 굉장히 더 어려워지실 거잖아요, 시간도 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농지은행이 있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작물을 길러 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말씀 주신 대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조금 간과하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혹시 라옴플랜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하실 때, 전에 청장님 하실 때 신고하실 때 사유서 작성에 장·차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주식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지인 추천으로 소개·매입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분이 남편분의 동생분이신데 지인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신고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공개되는 재산은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가 관보에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약자료를 쓸 때 제가 남편의 비상장주식을 주로 설명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장남·차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도 그렇게 오해되게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면 장·차남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장·차남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 공개되지 않은, 제가 원래 신고했던 신고자료에는 그게 구분이 돼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구분이 된 설명에는 라옴플랜이 배우자의 동생의 소개로 구매했다고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이제 요약자료를 작성하면서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동생의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쓰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김예지 위원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자료도 또 저희에게 오후 보충질의 전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전에는 0원이었다, 비상장주식이었다 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유상증자도 되고 굉장히, 2024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내가 이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하셨으니까 그 제출하셨던 원본, 그러니까 시동생의 회사라는 것을 명시하셨던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어제 KBS 7월 17일 자 보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압니다.

○김예지 위원 역학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해 왔었는데 저희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 2020년 그 관련해서 일하셨던 분이 제보를 좀 주셨어요. 2020년 5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확인했고 제품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내용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를 담당하던 역학조사관 A 씨와 B 씨 그리고 C 씨에 대해 일주일 동안 조사하려고 했대요. 당시 조사업무에 참여했던 전 참사위 조사관은 세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하되 협의는 가능하다 안내했고 세 사람 모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기로 했다가 제일 먼저 조사에 참여한 A 씨는 ‘역학조사 때 더 잘했다면 더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잘못을 자백하고 가셨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갑자기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 사참위 조사위원에게 문자를 보내셨지요.

문자 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후보자는 문자를 통해서 조사 예정이었던 C 씨가 코로나 관련한 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 일정을 좀 연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사가 연기되었고.

그런데 후보자님, 본인이 사참위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조사를 왜 이렇게 미뤄 달라고 부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당시 2020년 5월에는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서 문자로 상의를 드렸던 거고요. 문자 말미에 보면 다른 경로로 요청을 해야 되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공식적으로 상의를 드리겠다는 것들을 담아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여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코로나 방역에 역학조사팀장이 좀 빠지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아까 과장이라고도 하시고 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저 C 씨는 직함이 어떠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3명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김예지 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아까 이름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한 명이……

○**김예지 위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말 코로나 위기 대응 때문에, 이게 2020년 5월이었는데 그때는 위기는 위기였지만 그래도 혹시 다른 대체하실…… 왜냐하면 이게 조사를, 과거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이었고 또 정해져 있었음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분 말고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시다시피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고요. 역학조사팀을 꾸렸던 팀장들은 더더욱 인적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상황 때문에 제가 상의드리려고 문자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면 과거 2011년 역학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수거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은폐하시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당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고발된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과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지금 고발된 상황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청장을 그만둔 지가 좀 돼서요 최근의 진행 상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예지 위원**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관련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해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정말 축하드릴 일인지, 너무나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서 걱정도 됩니다. 당장 24일 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보건의료노조……

○**백혜련 위원** 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한시바빠 저는 지금 복지부장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될 당사자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료 사태로 인해서 1년 6개월 이상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료인들이 또 환자들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우리 위원들이 빨리 좀 복지부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조금 후보자님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죽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후보자님의 코로나 수혜주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아, 이것은 문제 있다.

정말 정은경이라는 코로나 영웅이지만 복지부장관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혜련 위원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과 관련해서 사진 좀 띄워 주세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농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실제로 정말 열심히 경작하셨더라고요.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가서 열심히 했나 싶고. 저희 보좌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아휴, 정말로 이것은 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농지법상의 90일 경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켜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향후에 그런 것을 믿었지만 실제로 이게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27년간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서 드러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는 그 마스크필터회사 에프티이앤이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보니까 이게 2010년 12월 31일부터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 열 번 정도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후보자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량 2018년 12월 31일 날 매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주식은 모두 매수·매도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해에탄올에 관해서도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창해에탄올 주식 구매 내역을 보니 2016년 10월 27일 첫 1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해 가지고 2025년 6월 20일까지 매입을 하셨거든요. 총 5000주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계속 말했듯이 이것은 그냥 계속 사기만 한 거예요. 판 적이,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지요. 배당수익이야 그냥 당연히 주식을 사면 배당수익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수익을 받는 것은 권고돼야 할 투자 방법 중의 하나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문제점은 단기 투자, 이익만을 좇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기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 것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돼야 할 그런 주식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또 PPT 보여 주세요.

장기 투자……

이게 16년간 거래단가, 후보자가 처음에 사실 때는요 한 주 2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주 가격이 9670원이에요. 51.65%나 하락했습니다. 하나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51.65%가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38.5%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투자를 가지고 이해관계 충돌했고 뭐 코로나 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없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지금 보니까 그 코로나 막 한 시기에는 정부에서 주정회사에도 손소독제를 좀 해라 해 가지고 그게 사업 내용에 추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4년도에는 의약품 손소독제 사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 그 주식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특혜를 받았든지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할 내용이 많은데 20초밖에 안 되니까……

후보자님, 제가 얘기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고위공직자로서 매년 재산신고를 투명하게 했고 또 그런 내용 등을 관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사업 변경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못했다에 대한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백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계속 웃으셔서 가지고……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한지아 위원님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위원장 박주민** 솔직히 제가 봐도 한지아 위원님 너무 웃으셔서 가지고……

○**백혜련 위원** 동의의 표현이지요?

○**한지아 위원**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민**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좋게 생각하십시오.

백종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종현 위원** 배우자의 프라임요양병원 및 인천사랑병원 건강검진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해 온 업무와 역할 그리고 증빙자료 일체와 프라임요양병원 근무기간 및 근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아마 원천소득증명서에 보면 기간들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것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데 근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당연히 성실하게 급여 받는 만큼 근무한 거여서……

○**백종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병원은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자료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종현 위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있을 겁니다, 아마.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세 차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실에 제출된 심사 내역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7년 보유한 창해에탄올 주식 1300주는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판단 받았으나 2021년 9월 후보자께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후보자 재직 중 해당 주식은 3700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본래 주정 생산 업체였으나 2020년 코로나 유행 시 손소독제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에 따라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백종현 위원** 지금은 알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금은 청문회 준비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백종현 위원** 특히 2020년 2월 식약처는 손소독제 제조에 식음용·화장품용 에탄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사업 영역이 방역과 직결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범위가 변경되면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의 직무와 직급이 같기 때문에 재심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답변 중에 복지부장관이 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후보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종현 위원** 후보님은 재심사 대상이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기관이었고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에 조직·인사·예산에 자율권을 갖습니다.

질병청으로 승격된 이후 직원 수는 560명 이상 증가했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으로 직무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백히 직무 변경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시면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 통지 후 이행조치 중 직무관련성 결과가 없음으로 통보되더라도 승진, 전보,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했어야 됩니다.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도 질병청은 독립외청으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직급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며 2017년과 2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재산신고뿐 아니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A 업체는 주정회사로 알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손소독제 관련주로 언급된 기업인지는 질병관리청장 재임 시기에는 인지하지 못해 장기 보유하게 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후보자 배우자는 2020년과 21년 사이 추가로 1132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후보자 본인만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저희 부부가 모두 다 이게 손세정제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백종현 위원** 아니면 후보자 배우자 역시 관련성을 몰랐다는 뜻인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까.

질병청이 승인한 손소독제 제품 중 일부는 해당 회사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품 품목 수와 생산량은 각각 117개, 405억 7739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해당 기업과 후보자의 직무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정황입니다.

직무와 연관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반대로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면 이는 공직자 윤리의식 결여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질병청이 승인했다는 것은, 질병청이 손소독제를 승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한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관 업무 자체가 변하지 않았고 또 차관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변하지 않았고 또 이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한 게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더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백종현 위원** 백경관 전 질병청장은 취임 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결국 불명예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백 전 청장의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현 위원** 직무관련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백 청장님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종현 위원** 본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가정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다른 부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분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민감한 질문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창해에탄을 관련해서 2020년 당시에 손세정제로 사업

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백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아직 복귀를 못 하셔서요 바로 김선민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정은경 후보자님, 오늘 어떤 브랜드의 신발 신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브랜드를 모르는데요.

○김선민 위원 그러시지요? 디올, 에르메스 그런 것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신발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언니가 사서 보내 준 그냥 일반 신발인 것 같습니다.

○김선민 위원 팬데믹 기간 동안 당시 정은경 청장님의 낡은 신발이 화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한 말투에 국민들은 위로를 받았습시다. 오늘 후보자님의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시다. 고맙습시다.

최근 언론에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는 기사들과 오늘 청문회에 제기된 의혹들은 그야말로 제목만 번지르르한 의혹일 뿐 기사 제목에 걸맞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시다.

오늘 오전에는 또 기가 막힌 오해가 있었습시다.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남에서 일하다가 질병청장인 아내 덕에 연봉 1.5배의 인천사랑병원으로 옮긴 사람으로 묘사되었습시다. 하지만 당시 배우자의 연봉은 1억 8000만 원 정도였습시다. 어마어마한 특혜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22년 조사된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3억 100만 원입니다.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8000만 원이라는 연봉이 꼭 질병청장이 특혜를 발휘해서 가야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습시다.

또 배우자의 주식이라고 제기된 창해에탄올, 에프티이앤이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 방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5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업을 하루 뺐다고 했는데 그날 저와 사진을 찍으셨습시다. 이 사진이 기사에 올라간 것이, 4시 이후의 사진입니다. 4시 이후에 기사에 등록이 됐으니 5시 수업에는 무리가 없이 들어가셨습시다.

또 사참위에서 가습기 조사를 한다고 해서 질병청장께서 직원들의 조사를 좀 연기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셨습시다. 20년 5월이면 20년 1월에 환자가 첫 발생을 하고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으로 빠져 있을 때였습시다. 좀 더 나쁜 청장이었다면 직원들 조사도 받게 하고 역학조사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 주는 질병청장, 기관장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시다?

이 수많은 기사와 의혹들은 그저 부풀려진 의혹들일 뿐입니다. 후보자가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은경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은경 후보자께서는 의대를 졸업하신 이후 개원가나 병원에 가서 돈을 버신 게 아니라 94년부터 96년까지 양주군 보건소 그리고 96년부터 98년까지 구리시 보건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당시에 전문과목으로 가정의학과를 선택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고 가정의학과를 마치고 보건소에서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가정의학과 수련받으시고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쌓여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켰습니다.

오늘 파렴치한으로 묘사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식을 사고판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일차의료 진료의료 오래 일하시다가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정은경 청장이 국민들과 코로나에 맞서 싸우도록 정말 훌륭하게 외조를 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김선민 위원 정은경 후보자와 배우자의 삶의 여정은 지역의사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큼니다. 이제는 후보자나 배우자의 헌신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지역에 의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지역의사제도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3조 5000억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에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 한 가지 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부처 내 감사 시행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선민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현재 단순히 증원만 한다 그래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지역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했던 것들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역의사제 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2000명 증원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다음은 이수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아침부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소중한 인사청문 시간을 허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대변인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서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 농지는 후보자 가족이 현지 주민의 도움을 일부 받았지만 실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이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증거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두 번째, 배우자의 에프티이앤이 주식은 공매도 관련 위험 신호가 있어서 코로나 발생 한참 전인 2018년 3월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수혜주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주식입니다.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창해에탄올의 경우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2019년 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3월 손소독제 생산 시기까지 집중적인 주식 매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식 매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배우자의 에프티이앤이, 창해에탄올 관련 주식은 2018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질병관리청장이 되었을 때는 직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추가적인 심사 청구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서울대 강의는 유세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다 진행된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수업은 최우선으로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필요시에는 개인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모든 일정은 다 연가로 처리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배우자의 하림 주식 실제 매매 시점을 확인해 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발생 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후보자 이자소득은 제가 살펴보니깐 2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2년짜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산 증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남 재산은 대학원 시절에 연구원 등 인건비를 받은 것이 모인 것과 일부 부모님의 증여 이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금은 연구원 인건비 1년에 2500만 원 전후 받은 거와 또 일부 해외주식을 본인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이것은 그야말로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고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거야말로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료제출은 어느 정도 다 뒀습니다. 그리고 의혹들은 다 풀려 가고 있습니다. 일부 불찰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족도 못 보고 코로나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왜 가족들 일은 몰랐냐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지 않다,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질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부터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서 산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국회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문이 발표됐고 정부도 차질 없이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공의 복귀라든가 또 그간의 환자의 참 가슴 아픈 사망이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의 악화라든지 이런 국민적 피해 반드시 문제 해결이 필요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부담 과중과 체계 변화 그리고 실직자의 증가 또 업체 파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됐습니다. 하나하나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의료대란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장 단체들을 만나서 의견 경청하시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도 함께, 정부 혼자 책임져라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역할을 할 거고, 국회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좀 전에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7월 2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행협의를체를 운영했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반공공의료 정책 그런 독선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행협의를체를 재가동해 달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현재 차관님이 지휘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 9·2 노정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료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새 정부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되는 이 정책이행협의체 재가동,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때하고는 좀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 참여의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개혁 거버넌스 안에 보건의료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건의료 노동자들,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의료대란 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절대로 그 역할을 했던 부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요.

아직 후보자 신분이지만 함께 잘해 나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소통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새 정부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간병·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셨어요.

간병 지옥, 돌봄 지옥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부담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정책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성기병원에서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병상과 병원을 확대하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좀 더 의료 수요, 의료 필요도가 높은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좀 더 외부적인 감시도 붙여서, 사회적인 입원 같은 그런 재정 낭비 요소도 좀 줄이도록 해서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또 목적 달성을 균형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웃기지도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해운대구을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21대 때 후보자께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상당히 존중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우리는 당시 야당이었지만 협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순조롭게 했었고 저는 그것 상당히 고맙게 여겼습니다. 단 하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인과관계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만 끝까지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마라’ 속담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그다음,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는 의심이 드는 그런 주식이나 또 농지를 포함한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 수익이 없거나 실패하면 문제없습니까? 그냥 일반론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의혹 제기나 의혹을 해소하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다른 담당하는 데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법적인 것은 가장 마지막이고 첫 번째가 국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다.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게, 이유 없이 의혹을 먼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를 본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께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어쨌든 증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제가 통화할 때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러셨습니다.

○**김미애 위원** 기존에 제가 봐 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의혹을 털고 잡시다’. 그리고 정책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전문가라고 하지만 보건 의료 쪽은 전문가일지 모르나 복지 분야는 생소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도 많으니 그렇게 잡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주시고 오늘 오전에 청문회 시작 직전에 주시면서, 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국민적 제기된 이 의혹이 해소되는지 아니면 또 여전히 남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당연히 청문회에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러면 여쭙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 모르겠어요. 다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6월 20일 자의 언론 보도는 ‘배우자 코로나 주식에 장관후보에서 밀려’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인지 뭔지 사실은 모르지요.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 의혹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제출하셨지요.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무례합니다. 청문회 직전에 던져 주고는 의혹을 해소했으니까 빨리 받아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여쭙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2017년부터 관보에……

○**김미애 위원** 2014년에 고위공무원이었는데 이때는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재산신고는 2002년부터 했고요 재산이 공개된 것이……

○**김미애 위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부터 고위공직자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때 후보자는 여전히 이 바이러스 공부와 관련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메르스 때는 업무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메르스 때 현장점검반장 하셨잖아요? 제가 하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길래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4년 10월 자 특징주 에프티이앤이 등 강세, 에볼라주 급등, 그다음 2015년 6월 메르스 수혜주 선수 교체, 백신주 급락 마스크주 급등 이런 것 보면 국민들이 마스크주 급등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리고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해소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창해에탄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창해에탄올도 그렇습니다.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직무관련성 심사를 했지만 2020년에, 여전히 업무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질병청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결정된 주식이라도’ 불러블라 해 놓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제1항 2호·3호만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해야 된다고 1호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입니다. 질병청장으로서 손소독제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요.

또 하나, 창해에탄올이 실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식은 희망이잖아요.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업종 변경이 등기부에까지 등재되었고 이미 그 이전에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주신 조문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김미애 위원** 그런데 평소에 제가 후보자의 성정을 보면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때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당연히……

**○김미애 위원** 그리고 창해에탄올 정도는 배우자가 구매했던 것 알고 계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창해에탄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년 재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습시다.

다만 몰랐던 것은 창해에탄올이 사업 변경을 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지 않았더라는 설명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미애 위원** 이어서 다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1차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 뵈는 데요.



사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1년 5개월간의 의료공백,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바로 환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의대생 복귀 환영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점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거나 또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분들이 거론했던 방법 중의 하나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환자기본법, 이런 법들의 통과를 말씀하셨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의 권익을 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자안전법이라는 조금은 좁은 범위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판단을 하는데 환자안전법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법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국회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리고 아까 김운 위원님도 잠깐 거론하셨는데 어제 환자단체분들도 역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수술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대란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진단든지 아니면 아예 경영이 어려워진단든지 해서 또 피해를 받은 업체나 직역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피해의 범위와 피해의 인과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상까지 이어지는 데는 재정에 대한 검토와 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이신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잘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게 현재까지 답변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전 정부의 경우에도 지난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의료대란이 없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받으신 피해를 보전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이후에 국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지금 또 여쭙볼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공의들 복귀하려고 하는데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서 몇 가지 좀 필요한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인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전공의 수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관련해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것이 대화의 어떤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수련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요소별로 들어가서 전공의 근무시간이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연속 근무시간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의학회나 전공의 간에 조금은 이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세부 내용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관련된 공론화 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위원장 박주민 오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차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이것 때는 것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 게요. 1분이면 됩니다. 이것 때 달라면서요.

○위원장 박주민 오늘 간사님의 1분 발언이 제일 아프던데.

○김미애 위원 뭐 어찌겠습니까? 야당인데.

○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후보자님, 하나투자증권의 거래증명서를 제출하셨는데 사실은 별로, 어두워서 제가 보기는 힘들지만 제출한 걸로 보고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키움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외에 배우자와 자녀들 거래한 증권사는 더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는 아예 증권계좌가 없고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배우자는 2개가 있는데 그게 다입니다.

○김미애 위원 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없다고 하셨으니까 향후에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 위증죄를

포함해서 책임질 수는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출했던 기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저의 것이라면 제가 100%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배우자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 배우자와 자녀가 이 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금 드린 것은 저와 배우자에 대한 걸 드린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또 있을 수도 있겠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자녀에 대해서는 제출을 드리지 않았고요.

○**위원장 박주민**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 배우자 것까지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자료 요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아니지요, 다른 위원들이 자녀들 것도 했었지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증권사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업무 시간이 종료되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언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지나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료가 어떤 범위인지를……

○**김미애 위원** 다른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저의 문제가 아니어서 배우자에게 최종 더 확인하겠습니다. 없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자녀도 성인이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계좌 공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녀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요.

○**김미애 위원** 그것 의무가 있잖아요, 제출 의무가.

○**백혜련 위원** 그것 개인정보라서 자녀가 ‘노’ 하면 어떻게, 엄마라고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김미애 위원** 동거 가족이면 제출할 수 있지요. 재산신고하지요. 그러면 12월 31일 하루만 제출하면 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주민** 제 생각에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것까지 제출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정회를 좀 하고 5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약 1시간 정도 진행한 후에 저녁을 먹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2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1차 질의를 5분, 2차 질의를 7분 쓰실 분들을 조사했는데 김남희 위원님은 1차 질의를 5분, 2차 질의를 7분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장종태 위원님하고. 그래서 두 분은 2차 질의를 7분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정 후보님, 우리 코로나 5년 전의 메르스 사태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그때 메르스 사태 때 우리 후보자님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으로 최일선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부실 대응으로 징계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당시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감경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징계사유에 보시면 환자 접촉자 관리가 미비했고 또 3차 감염 환자 늦장 보고를 했고 또 삼성서울병원의 첫 의료진 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늦장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부실 대응을 하였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종 감염병 시기에 그리고 처음 나타난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 강남구에서, 메르스의 가장 진원지였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감염병 대응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교훈으로 방역 관련 규정이라든지 제도개선과 또 행정체계와 조직이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대개편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우리 방역체계가 좀 더 체계화되고 고도화되어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때 가장 대응을 잘한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방역은 하였지만 그 와중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첫 사례를 보시면 코로나 초기 때 확진자 유입의 가장 유일한 경로인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가 좀 늦어진 것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가 2월 2일부터 입국금지를 시켰는데요. 다른 국가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국가하고 비교할 차이는 아니고요. 국내 사정이 그 당시 확진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의료계에서도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해야 된다는 건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강제 통제 수단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회 통제 정책으로 방역 관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후보자님, 만약에 다시 이런 감염병 사태라든지 공중보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될 때 예전과 같이 그런 사회 통제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패스라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다시 쓰실 계획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난 코로나 유행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농지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 당시 경남 창녕에서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평창 가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말에 평창을 왕복하는 데 8시간 걸립니다. 자택인 용산에서는 6시간 걸립니다. 저것도 빠른 시간으로 측정한 시간입니다.

다음 PPT 보세요.

일상적으로 어떤 시민이 퇴직 전에 100평의 주말농장을 하면서 연습을 해 본 결과 하루에 15~16시간 일하는 정말 고된 중노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주말 농부로 1인이 적정한 평수는 15평 안팎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아주 잘 짓는 경험자라도 30평이 상한선입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농지는 무려 1660평, 정말 대규모,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농장급 농지입니다.

지금 보시지요. 저걸 보시면 과연 부부가 주말에 가서 농사지은 농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정말 전문가가 지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후보자님, 직불금은 다른 사람이 받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서명옥 위원 우리 법상 직불금은 실경작을 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만 봐도 실경작자는 후보자가 아니고 평창에 사시는 그 지인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같이 주말에 가끔 내려가 가지고 농사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가질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가끔 주말에 가서 잡초 뽑고 조금 도와주면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농지 취득에 대해서 못 박아 둔 것은 그만큼 농지 취득에는 엄격한 기준을 요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후보자님은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의 주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좀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갖고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경작자는 평창에 있는 그 지인입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 농사짓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기회에 농민들에게 조금의 유감 표시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답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이동거리 먼저 말씀 주셨는데 창녕에 근무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 근무였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지내면서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가는 건 어려웠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현재는 1660평인데 절반 정도는 저희가 한 4~5년 전부터 나무 묘목을 심어서 나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가서 풀 베는 거랑 가지치기하는 거랑 이런 관리를……

○서명옥 위원 어쨌든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리고 주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목적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농촌생활을 같이하고 싶어서 실은 했지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앞의 POP를 떼어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경작을 흥 씨가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직불금을 흥 씨가 받은 것은 2005년부터 받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네 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불제가 논의 직불제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 밭의 직불제가 2012년부터 되는데 흥 씨가 밭의 직불제도 2012년에 받아요.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흥 씨가 결국은 본인 땅에 후보자 가족 땅까지 넣어서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본인이 소유한 땅이랑……

○서영석 위원 그 초기의 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행정 처리가 잘 안 됐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직불금 지급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경작을 했다면 2009년·2010년·2011년 계속 직불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경작을 한 것이다, 직불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경작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창해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창해에탄올도 후보자가 잘 모르는 게 2020년 3월에 국세청에서 주정 제조 9개 회사에 대해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요, 그

렇게 하도록. 코로나19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정 제조업체들에게 그렇게 손소독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지금은 생산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직무연관성을 물어보면 인사혁신처에서 ‘직무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해외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내일이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입법과정에서 2년 동안의 기한을 줬는데 제대로 된 기록관을 만들지 못하고 임시 서고를 지금 고양의 구광 물류센터에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고 결국은 입양인들에게는 텃줄과 같은 그런 기록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참여도 보장하고 국가 기록관에 대한 로드맵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보고를 받았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해외입양인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장관이 되시면 각별하게 이 문제, 아니 장관이 되기 전이라도 내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제일 큰 숙제 중의 하나가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에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쪽 관련 단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한의사·간호사·약사·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다양한 직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된 정도가 기대나,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후보자가 K-방역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은 보건의료단체들이 환영을 했고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큰데 다른 한쪽의 우려는 후보자가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치우치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의료 불균형 문제, 통합돌봄 문제, 의료와 복지 연계시스템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산적한 과거의 의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패러다임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입양 기록에 대한 국가 기록관을 좀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재정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한

130여 개만 하다 보니 조금은 준비가 아직은 미흡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조직이나 인력이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 대한 우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다양한 보건 의료 직종과 또 국민과 주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바로 안상훈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코로나 대응 시기 정말 바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랬습니다.

○안상훈 위원 머리 하얘진 게 그게 갑자기 검은 머리가 하얘진 겁니까, 아니면 염색을 그때 못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염색을 못 한 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 하여튼 24시간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다른 일 할 짬이 굉장히 없으셨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아까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 주식 이런 것도 그때 너무 바빠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에 현장 대응 말고 또 많이 하신 게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면 논문을 엄청 쓰셨습니다. 전후 청장님들 보면……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기석 본부장님이나 백경란 청장님이나 다 관련 학계의 아주 훌륭한 연구자들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이분들이 청장 말고 나서 너무 바빠 가지고 논문을 한 편도 못 썼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 바쁜 코로나 시기에 논문을 또 엄청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직원들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편은 교신저자입니다. 교신저자는 주저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기획이나 전반적 관리에서는 더 품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서울대 교수 24년 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학교 본부 보직만 맡아도 논문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직접 논문 진짜 다 쓰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논문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대부분이 2020년하고 21년 초기에 쓴 논문들입니다. 그거는 코로나가 신종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역학적 특성이거나 임상적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국내외와 공유하고 지침을 만드는 게……

○안상훈 위원 제가 시간 문제 좀 여쭙았던 거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중심대학이거든요. 논문 요구사항이 교수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정작 연구중심대학인 서울대 교수 임용 후에는 진료도 면제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논문 실적은 제로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청장 때는 그 바쁜 시기에도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쓰시다가 연구중심대학 서울대 교수가 돼서는 논문이 없습니다. 이따 답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취업 관련해서도 좀 이상한 게 많이 보이는데요. 질병청 퇴임 직전인 21년 12월에 질병청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공모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이 22년 3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다섯 달 후에 후보자님 단독으로 지원해서 가지고 직을 들어가십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이 직을 보니까 하루에 3시간 반 근무하시고 1년 근무도 채 안 하셨는데 9000만 원 수령하셨고요. 이거 할 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주로 감염병 관련된 정책 자문과……

○안상훈 위원 연구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연구했습니다.

○안상훈 위원 직책에 연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관련된 논문이 또 한 편도 없으십니다.

이거 감염병전문병원 지정될 때 청장님께서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지정 사실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정, 어느 시점을 질문하시는 건지……

○안상훈 위원 이 내용 청장 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정에 대한 결과 보고는 당연히 받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날 거라는 건 미리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상훈 위원 예.

계속 이상한 일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계시다가 서울대로 옮기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여기 옮기실 때는 나온 게 가정의학과 교수 채용 공고였고 이것 딱 맞춰 가지고 채용 공고 맞춤형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논문이 급히 게재가 됩니다. 이 또한 질병청 직원들과 같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수 지원할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다섯 편 모두 후보자가 교신저자인데 절대다수를 질병청 직원들과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 때 쓰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서울대 교수 하면서 이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신 분 못 봤는데 그래 놓고 정작 서울대 교수 된 다음에는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 본인이 쓰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안상훈 위원 예. 지금 모 장관후보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어디 채용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후보자에게서 그 의심이 들거든요.

답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공중보건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또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학회지에 내고 국내외에 정보를 공개하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서는 저희가 특성을 전혀 몰라서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접촉자에서 2차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임상적인 특징이나 어떤 환자가 고위험군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교신저자를 한 것은 그 조사에 대한 것과 분석에 대한 것을 총괄 기획을 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됐던 거고요. 잘 보시면 저자가 이삼십 명 정도로 굉장히, 10명 넘어가는 논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임했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채용이 될 때는 제가 임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사회개발원이라는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하지 않았고, 아직은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결과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연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실적화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용될 때 썼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만성병이나 건강행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청장 근무할 때부터 같이 논의했던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논문을 마무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를 제안했고 기획을 같이 했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토론, 디스커션(discussion) 부분을 같이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문받으신 배우자 주식 문제 관련해서는 더 질문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논란이 명확히 소명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큰 부서잖아요,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 분야는 후보자만큼 잘 아실 분이 없을 거다, 드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복지 부분이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1200조 원이 지금 넘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1200조 원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 자산배분안, 기금운용지침 그리고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주식 관련 질문 받으셨는데 정작 후보자님은 투자 경험도 전혀 없으시고 이것 1200조 원 잘 운용하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마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된 것은, 주식에 대한 전문가를 장관으로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 방향과 총괄 관리 또 국가의 책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금운용은 기금 운용하는 본부에 맡기고 또 실무 위원회에서 중장기 전략 방향이나 배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은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앞으로 구조 개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영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발 좀 물러서고 기금의 구성에 있어서 투자전문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시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대체로 깊은 고민은 안 해 보셨다는 인상을 주는 답변들이었고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쭙었을 때 '5.5%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후보자님,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평균 한 6.7%고 작년에는 15%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88년 설립 이후가 연평균 6.8%고요, 최근 3년 평균이 6.9%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표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수익률보다는 더 높아야 그걸 목표치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5%, 그냥 재정추계할 때 썼던 숫자를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관심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거나 지역 가입자 대표, 근로자 대표들이고 투자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상. 청년대표라고 할 만한 청년 구성도 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청년들이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보직 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목표는 지난번에 모수개혁 할 때 제안했던 5.5%를 일단 목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담당자들의 고민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또 투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아마 더 높여서 목표를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목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대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불만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 입장에서는 세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전문성이 있는 걸 근거로 한 어느 정도의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임명되게 된다면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 라옴플랜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라옴플랜 대표는 후보자의 남편 친동생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최보윤 위원** 2023년 유상증자 당시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후보자의 두 아들이 투자한 회사의 관계코드가 친족이 아니라 기타로 기재돼 있습니다.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허위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최보윤 위원** 이게 허위 기재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2021년 재산신고 당시에 관보에 적시를 했는데요. 이 주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보면 지인의 소개로 매입한 것, 회사 실적이 저조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현재 가치는 0원이라고 관보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중대한 거짓 기재가 포함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께서는 보통 남편 친동생을 지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두 번째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회사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부

매각이 없더라도 주주의 자금회수가 가능한 구조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2023년 12월에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1500만 원씩 추가로 라움플랜에 투자도 했습니다. 가치가 0원인 회사에 추가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설명입니까? 이 역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최보운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관보에 게재된 부분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원래 재산신고했던 세부내역 자료는 의원님실에 전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한 것은 요약을 하다 보니, 남편의 비상장주식 기준으로 요약을 하다 보니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신고내역에는 지인, 시동생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또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공개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최보운 위원 그러니까 공개자료를 국민들이 보셨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혹이 될 부분인데 공개된 부분과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창군 농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하자면 후보자는 강원도 평창에 160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남편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부족할 때는 현지 지인들이 도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이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 거리 문제입니다.

먼저 자택인 후암동에서 평창 농지까지 편도로 155km, 2시간이고요. 인천사랑병원은 165km, 약 2시간 50분이고요. 창녕 병원에서는 약 350km, 5시간 거리입니다. 특히 창녕 근무 당시에는 병원 내 숙식하셨고 또 그때 카드 사용내역 보여 주시면 연평균 150만 원이기 때문에 연 13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연 13만…… 월 13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월 13만 원 수준인데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만 따져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왕복 700km, 10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이 과연 납득할 수 있나 저희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또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해 오셨는데 오늘은 ‘창녕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죠’라고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또 여당에 사진 몇 장 보내 놓고 믿어 달라는 식으로 이건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태도를 이렇게 보이신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이고요.

둘째는 직불금 수령내역입니다.

직불금 관련해서도 결국은 제삼자가 부정수급했다는 말씀 아니실까 싶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의혹을 보면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 오신 후보자 남편이 이렇게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는 해명이 결국 스스로도 시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명도 납득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많은 의혹을 남기고 결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거짓 해명이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해 보입니다. 공적인 자리인 만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 역시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관련된 부분과 또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말 바꾸기, 오늘 자료제출, 믿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실 수 있을지, 실망을 안겨 드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서 관보 게재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허위신고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요약하면서 차남, 장남을 뺐으면 맞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재산신고한 내역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관련해서는 창녕에 있을 때는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코로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저도 그때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 부탁을 드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농지를 보유하고 27년간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직불금은 저희도 청문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신 그 선생님은 이것을 부정수급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면서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저희 땅에 대해서도 같이 신청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는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검증해서 돈이 지급됐는지는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농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 세부사항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여쭙보지는 못했고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는 두 가족의 땅 전체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을 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요. 아마 공동 신청했는데 초창기에는 행정적인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보운 위원** 공동 신청을 했는데 받아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같은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전혀 그렇지않고요. 네 번 정도를 받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2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최보윤 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직불금을 받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의 성향으로는 그런 것을 부정수급이나 어떤 돈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윤 위원** 그런데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혹에 대해서 결국은 아니라고 밝히셨는데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농업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농업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은 농작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소영 위원** 그만하시지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백혜련 위원** 후보자도 그만 대답하세요.

○**서명옥 위원** 농지법 위반이지요, 실정법.

○**최보윤 위원** 후보자 대답하고 계시니까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 박주민** 최보윤 위원님, 시간은 다 경과했고 하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보윤 위원** 후보자 대답하시면 듣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히려 위원님이 자르셨습니다, 말씀을.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이신데요. 장종태 위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을 사용하시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국립대병원 육성은 지역·필수 의료 위기 해소의 핵심 대책으로 이는 2005년도 처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결정되어 여러 차례 추진해 왔습니다만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에 있지만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연구 기능 위축, 자율성 침해, 신분 보장 불안이 주된 반대의 이유였고 공공의료의 대표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계속 교육부의 소관으로 남겨 두기에는 지방의 국립대병원들은 자본잠식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으로 역량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성과 정책 수단의 한계가 있는 교육부에서 이공계 전체와 자원을 나누어 갖기보다는 보건의료정책에 특화된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집

중된 정책·예산 투자를 받는 것이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는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임상 등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태 위원**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립대병원 교수님들의 반대가 지속된다면 국정과제로 선정됐을 때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 의료 확충과 국정과제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국립대병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거는 기대가 더 큼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의사로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으시고 공무원으로서 오랜 행정 경험과 국립대 교수 재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교수들과 신뢰감 있는 소통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지와 장관 취임 이후 이관 추진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금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것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고 국정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교육·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부의 연구비가 1조 정도 되고 또 교육도 결국은 임상에 대한 강화가 같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신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보완해서 이관이 빨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지금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면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어떤 태도나 지금까지의 행태에 우리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출처의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1만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의정 대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의 복귀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진정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전공의협회의회의 비대위가 아마 토요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또 의견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수련 정상화 또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고요.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태 위원** 최근 환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 전공의단체에서는 복귀와 관련해서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만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존 전공의 보호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후보자님도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장종태 위원** 그렇다면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복귀와 함께 복귀 후에 필수의료과목 수련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필수의료의 지원율이 계속, 과목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낮은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가에 대한 부분들 또 수련 과정에 대해서 수련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요인들을 좀 따져 보고 요인별로 분리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먼저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그리고 또 환자들의 의견 등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장관님의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열심히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인데 여전히 안 오셨고 그다음에 전진숙 위원님은 광주에 지금

폭우 때문에 내려가셨고 그래서 한지아 위원님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정은경 후보님, 아까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배우자와 본인이 주로 농작을 하셨고 그리고 지인분들은 도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불가능했거든요, 주중에는 가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깨끗하게 그냥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면질의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의사 증원에 대한 생각을 서면으로 여쭙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법 절차적으로 맞는 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질의의 요지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여쭙본 것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양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특수한 과목이나 특수한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추계를 해야 전체 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답변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두 축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인데 한 분 후보자는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후보자 의견이 궁금했던 거고요. 또한 이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하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청문위원 질의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의사 수 증원의 결정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여부도 여쭙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지금 의사 증원에 대한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도 지역이나 필수과목의 의사에 대한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정원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제부터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에 대한 추계나 그 의사들을 어디에 어떻게 근무를 시킬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 정부에서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급성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꼽으셨기 때문에 공공의대

와 의대 증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로서는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국이 자국 중심의 보건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최고율 관세를 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통상 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한국바이오협회는 200% 관세는 상상도 못 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미국이 점진적으로 의약품 수입관세 부과하면 사실상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복지부는 방향성은 없는 것 같고 산업부와 외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은경 후보님께서서는 안정적이고 코로나 때 전문성이 있고 그렇지만요 지금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미래 먹거리를 보건산업이 주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산업국이 복지부에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그게 주무부처가 복지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진흥정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주무부처가 맞겠지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ですよ. 그런데 통상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산업부·외교부에 넘기실 거면 보건산업국도 그냥 산업부와 외교부에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산업 관련 국제 통상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산업부·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보건 통상·외교 중추 역할을 복지부가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년 내지 1년 반 후에 200%를 하는 것을 목표로 관세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품목 관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드리고요.

저희도, 보건의료 분야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미국 수출이 한 16% 정도 차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약품 품목 관

세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긴밀하게 정부 내에서도 협의해서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농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농업을, 열심히 지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시기도 있고 많았던 내용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우리 이제 저녁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주영 위원님은 본인까지는 질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주영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패착 중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서 정확하게 쓴 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리고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행정부가 잘 일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는 특히 또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국가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하든가 혹은 담대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보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2021년 1월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거리가 좀 확보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입원실의 1인당 면적 기준을 좀 상향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의학적으로도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정부의 어떤 고려 없이 강행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연도별 정신병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고했던 그대로 아주 급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백업 정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총 1만 개 이상 그리고 급성기 환자에게는 특히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중요한데 거의 25%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들 결국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치료감호소라든가 교정시설로도 지금은 횡 이동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든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제어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더 이상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당시 확진자가 폭증할 때마다 민간병원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의 3주 시간을 주고 시설도 바뀌라, 병상 확보해라 해서 제가 그때 응급실에 있으면서 진료 중에 쫓겨나서 이것을 막 격벽을 치고 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사실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행정명령들이 너무나 무수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음 보시면, 이게 후보님께서 참여하신 논문이지요.

다음 주세요.

이것을 보면 후보님 성함 이렇게 들어가 있고 2020년 11월에 엑셉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그다음 보시면, 2021년 1월에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개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앞의 논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적은 숫자, 127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연구한 것도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이때는 지역사회 감염도 많지 않았고 등교도 거의 안 했던 시기에 127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실 이것 그냥 리서치 페이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2% 정도밖에 감염이 없었으니까 안전합니다, 이것을 레퍼런스로 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근거로 제시하면서 개학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개학을 강행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감염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지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후보께서 직접 참여하신 논문이었으면 이 논문의 한계라든가 이것을 레퍼런스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좀 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때 잘못했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한 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민간이 차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재원을 거의 투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 노력 없이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민간 자원을 또 이런 식으로 차출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먼저 정신병원의 병상이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줄어들어서 제대로 된 입원이 어렵다는 것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정신병원이 굉장히 밀집되게 입원이 되어 있고 밀폐돼 있다 보니 코로나 감염에 굉장히 가장 취약했던 그런 시설이어서, 병원이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걱정했는지, 보완할 것이 없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대청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의료 병상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진행이 되면서 감염환자가 같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걸 너무 구분하다 보니 너무 유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팬데믹을 위해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소아 논문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소아환자들이 어디서 감염되는지 감염원을 조사해서, 학교에서 감염되는 게 한 2% 정도고 그 논문의 핵심은 학교에서 안전관리를 잘하면 안전하게 학생을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도가 달라질 때마다 학교의 위험이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의 저희의 관점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도 시켜야 되면서 감염관리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건가에 대한 게 저희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게 됐고요. 상황이 바뀌면서 결과들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영 위원 앞으로도 충돌하는 이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점이 건보도 문제고 연금도 문제고 의료개혁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일하실 때는 대통령실과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 의료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 국회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소신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아까 이주영 위원님을 끝으로 정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김남희 위원님께서 나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셔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까지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후보자님, 우선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들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셨던 비상장주식 라옴플랜 관련해서 제가 2020년 12월 31일 후보자님이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까 변동 사유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와 자녀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용이 둘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각각 기재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각각 기재가 돼서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지인 소개로 매입했으나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녀가 소유한 비상장주에 대해서는 배우자 동생 소개로 매입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공개용 자료를 만들 때는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은 재산신고 내역에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서술해 주셨는데 이게 관보에 기재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서, 배우자의 보유 주식과 장남·차남 주식 내용이 그냥 다 혼합돼서 되는 바람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보를 후보자님이 작성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마 재산신고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데요. 너무……

○**김남희 위원** 그렇지요. 재산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하셔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김남희 위원** 새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하고요. 적절한 의료돌봄 제공으로 불필요한 병원이나 시설 이용을 방지하고 퇴원 환자들이 퇴소 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통합돌봄이 잘되기 위해서는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사례 관리하는 체계와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공 인프라가 충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맞춤형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질 높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과 의료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이런 분들의 노동도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적절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장에서 돌봄인력이 충분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인력 수급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말씀 주신 대로 처우가 낮고 또 일하는 근무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자격증은 가졌지만 일을 안 하는…… 지금 일을 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런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남희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

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구도 있고요.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권고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는 않았습시다.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근속을 하면 근속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강도의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보상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말씀하신 대로 근속이나 아니면 업무 강도에 맞게, 노동한 것에 맞게 임금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원칙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취업이 돼 있다 보니 정부가 민간기관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이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직무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요양보험에서 관련된 인건비 지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정부가 앞장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것을 위한 준비의 정도가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돌봄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전담조직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행안부랑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행안부나 기재부 이런 쪽에서는 전담인력 확대 대신 기존 인력 재배치 쪽으로 우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선 통합돌봄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때 지자체 공무원을 감원하고 재배치한 것 때문에 이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신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좀 잘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제 저녁을 위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을 고려해서 2시간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에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식사를 하고 나니까 다들 잠이 안 오시지요?

○김미애 위원 예,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힘이 막 솟구치시지요?

계속해서 2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후보자님, 아침부터 힘드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후보자님이 어떤 분이신데 힘드시겠어요.

○김윤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장종태 위원님께서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학병원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도 지방대부터 사직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 주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좀 조정해서 올려 주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인력을 늘려서 위라벨을 갖고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지금 당장 대학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명확한 어떤 개선안, 시점 이런 것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가 인상 같은 경우 최근에 복지부가 원가 기반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3년 안에 원가 100%를 맞춰 주겠다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조금은 시급하게는 단기대책이 필요한데 말씀 주신 그런 개선방안이 대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정책들이어서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과 약속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방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보고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 위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부가 명확한 타임라인과 목표를 제시하면 저

는 필수요료를 하려고 하는 젊은 전공의들이나 교수들이 참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실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들에서도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흉내 내기에 그치는 정도의 대책들에 그쳤고 본질적인 대책인 비급여의 가격관리, 실손보험 적용에서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급여 범위의 설정 또는 실손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본적인 비급여 실손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대책하고 실손보험대책을 마련한 것을 봤는데요. 아직은 제가 아주 깊게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좀 더, 가격관리를 강화할 기전을 어떻게 만들 건가 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손보험도 축소하는 부분도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대책은 발표가 됐지만 그걸로 전체 건강보험까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 위원** 최근에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매년 최대 약 11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손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하면서 사회적 입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 그분들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 가서 돌봄을 받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서 사회적 입원을 하든지.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돌봄을 받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절감되는 재정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을 하는 기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라고 하는 협소한 범위에서의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까지를 놓고 넓은 시각에서 입체적인 정책을 해야 이게 바람직한 형태의 지역사회 돌봄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사회적 입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살던 곳에 돌아가서 재가서비스나 시설서비스를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들을 연계해서 거주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서비스 확대나 아니면 재가 의료에 대한 부분

들 그리고 새로운 많은 그런 지역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또 제공 체계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비용만 가지고 사회적 입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더 인간다운, 좀 더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클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 부분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마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일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체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산 신약 37호·38호가 승인이 되고 또 기술수출 규모가 8조 원대를 웃도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에—올해지요—약 1조 원 정도의 출자펀드를 보건복지부가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분명히, 어느 정부를 떠나서 계속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는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제약·바이오가 또 공약에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진행 상황과 개선방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인력도 한 7000명을 늘리겠다, 행안부랑 또 협의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지역에 보건 관련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주거 지원까지 포함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정된 법에 이런 돌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노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돌봄과 관련한 사업을 어르신과 그다음에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돌봄보장위원회를 대통령실에 하든지 총리실에 하든지 그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시급하게 정비를 하고 시행령 같은 것을 정비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만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틈새 돌봄도 해야 되고 특히 재택의료센터 같은 것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노인 그리고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생존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도, 사례관리를 해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아마 의료라는 부분과 또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복지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촘촘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그동안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이 있는데 지난 정부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도화정책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기능인 공공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돌봄 통합지원법도 중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부분도 꼭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위원님께서 그 개정안 발의했다라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좀 더 안착할 수 있고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할 때 같이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4월에 나서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가 비범죄화가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낙태 대신에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낙태, 임신중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라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한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바로 답변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하느라고 힘들었지요. 또 의료대란 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올해 사무관만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꼭 마련하시라 그리고 노조와도 꼭 소통하시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임신중지라는 용어가 더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의견을 좀 더 모아 보겠고요.

인권위 권고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을 연계해서 개정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 미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단축할 수 있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유념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습니까?

○남인순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후보자님께 이제 정책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된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복지 관련해서 특히나 약 300여만 명이 되는 장애인들의 어떤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를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을 거쳐서 지금은 인권적 모델을 지향하는 그런 추세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도 그러할 텐데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의 의료적 모델, 왜 의료적 모델의 한계를 가지고 지금 인권적 모델까지 발전해 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장애의 원인이 대부분은 질병이나 손상으로부터 발생을 하다 보니 의료적인 관리나 이런 것에 처음에 초점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범위를 넓혀 가면서 사회적인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역할이 강조가 되고 지금은 인권으로서, 그러니까 기본 권리로서의 장애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와 또 서비스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맞습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사회환경이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손상만 보는 의료적 모델 또 결핍, 손상, 뭔가의 부족 이렇게 보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요. 사회적 모델은 말씀하셨지만 핵심 개념이 장애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인권적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권적 모델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 있다 해서 장애인은 권리를 요구할 정당한 주체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법적·정책적 방안을 만들 때 기본이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양한 이슈들에서 장관후보자시니까 장관님이 되신다면—거의 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대부분은 다 그냥 임명하시니까—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또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거나 이러셨을 때 조언을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대구 지역일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장기 입원해 계시던 환자였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맞습니다.

○김예지 위원 103명 중에 10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2020년 3월 1일에 경기도에서 당시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를 전국 최초로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외부와 격리생활을 하고 또 면회도 금지되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었었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왜 그랬냐면 이게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되었고 장애계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책이 방역과 복지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와 비슷한 감염병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도 이런 집단거주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지시하시는 것을 그냥 묵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코로나 초기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정신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호할까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에 이런 코호트, 사전예방적 코호트라는 개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다시 온다고 하면 감염취약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방적인 조치들을 강화해서 좀 더 인권친화적인 방역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김예지 위원** 당시 긴급 탈시설 그리고 분리조치 등이 요구되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대안을 제가 드리니까 이 점도 생각해 보시고.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만큼 우리도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또 이어지는 건데, 이때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2020년 6월 처음으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문서상 존재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지원 인력, 수어 통역, 정보 제공 등의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이 같은 부실한 조치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책임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매뉴얼에는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지 기재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장애인 부서가 담당이라고 했고 결국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로 내려갔으며, 그러면서 또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각종 지침도 각 지자체의 보건과나 감염병 전담 과로 내려갔고 이렇게 굉장히 혼선이 계속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지부가 무엇을 하고 또 질병관리청은 무엇을 하고 이런 이원화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거버넌스 관련된 문제기도 하지만 또 장관님이 되실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 이 이원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실 텐데 이런 주체가 부재했던 것에 대한 것 또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보건복지부와 또 질병관리청 간의 이원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조직의 이원화로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도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지침을 할 거고 그 표준지침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각자의 분야에 맞는 그런 지침으로 그것을 전환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청은 표준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학교지침으로 만들고 또 고용부에서는 사업장지침으로 만들고 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부가 관장하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의 지침으로 만들고 그것을 서로 검증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못 끊어서 그런데,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데 복지부는……

잠시 시간을 30초만 더 써도 될까요? 질문을 잘못……

○**위원장 박주민** 마이크를 더 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예지 위원** 예, 마이크 안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주민** 예.

○**김예지 위원** 후보자님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장애인에 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관련된 이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혼선이 왔던 거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을 맡았기 때문에 감염병만 관리한다고 그래서 서로 이런 핑퐁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무리 감염병이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감염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 국민 안에 장애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미루는 거지요. 장애인의 다른, 예를 들어서 스페셜 니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의무가 없더라든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원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것을 아마 장관이 되시면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설명 잘 이해했고요. 책임과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런 공백이 없게끔 업무분장을 잘해서 매뉴얼에 대한 정비나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후보자님, 이제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2학기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특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먼저 복귀한 학생들이 과도한 신상 털기와 조롱, 협박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대란의 과정에서 정말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에 엄청난 협박과 그런 것을 했고 기소된 사건도 있었지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나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과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등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건가.

제가 지금 딱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소속된 그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구성원들에게만 맡겨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나 기존에 했던 것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기존에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우시고.

지금 돌아온 학생들이나 돌아올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좀 힘들더라도 먼저 그러면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더 편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대생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후보자님이 이렇게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셔서 그런데 지역에다가 의대를 세우는 게 꼭, 그렇다고 그 지역의료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아까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서 정원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역에 공공의대라든지 또 의료사관학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런 기관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현재 필수·공공 분야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는, 두 가지가 동일한 명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법적 근거나 대학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때문에, 지역별 필요 정원을 좀 추계해서 기존에 있는 정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의대는 조금 더 지역의 어떤 의료인력 추계나 아니면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 보고 교육 부하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 문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혜련 위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부 애기도 나왔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거나 그런 것 있나요, 혹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출생·고령화가 중요한데 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나 권한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국정위에서 조직개편 방안은 거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복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더 역량을 투입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올해 말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본계획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혜련 위원 좀 잘 살펴보고 저출생 정책조직 거버넌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2022년 5월을 끝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떠나시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공부문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종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4년 5·6월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문제를 일으킨 교수와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 사건은 청문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백종현 위원 저희들 자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종현 위원 나중에 나온 자료를 보시고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인권센터 측에 따르면 산부인과 A 교수는 지난 2023년 9월 보건복지

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했지만 같은 과 전현직 전공의 4명과 교수 1인을 대상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피해 전공의들에게 아기 모형을 던지고 본인에 대해 신고했냐 묻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센터 측의 조사 결과 A 교수는 최소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정은경 후보자님의 재직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27일 징계를 최종 의결한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측은 이 A 교수에 대해 겨우 감봉 1개월에 지도전문 자격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이 A 교수와 후보자님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간 분당서울대병원 내 공공의료사업 월례 간담회에 참석하고 성차의학연구소 및 경기도 보건 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친분을 쌓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분당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수님들 개별적인 이름이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백종헌 위원** 사진 한번 잘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참석한 것은 제가 맞는데 그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으면 교수님들 다 알겠지만 간 지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했지만……

○**백종헌 위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는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종헌 위원**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백종헌 위원** 후보자님, A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인권센터나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가 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요청하였는지, 전혀 개입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친분은 없고 징계나 이런 거에 제가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바는 없습니다.

○**백종헌 위원** 의대생 휴학 및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 국면에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A 교수에 대한 후보자님의 태도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의 갑질 근절과 인권 보호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교수와 재직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답변,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제가 알았는데 그것을 굳이 모른다고 답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려고 하시는 분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야 될 그런 위치에 서신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어느 직장이나 갑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재발방지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의료기관에서도 전공의와 교수 관계가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서울대병원의 숨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답변을 나 몰라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교수와 그 징계 수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공의 및 공공의료 분야 갑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절, 인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개별 사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처벌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의 전공의에 대한 갑질이나 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예방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저도 김예지 위원님에 이어서요 인권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무덥고 습한 여름날에 장애 당사자……

○**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위원님,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잠시만 있다가 시작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시계 꺼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예, 시계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서미화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심심한데 저라도 떠들까요?

(웃음소리)

준비됐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미화 위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인권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무덥고 습한 여름날에 장애 당사자들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은 물론이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편의 중심의 서비스종합조사하고 턱없이 부족하게 제공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당사자 중심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계에서는 현재 민관 협력 TF 구성을 비롯해서 정부에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임명이 되시면 이

분들의 요청대로 면담과 민관 협력 TF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서비스지원조사지표 개선이나 활동지원에 대한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소요나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면담을 장관님께서 하시면서 TF 구성을 통해서 당사자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전문가를 장애 당사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래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면밀히 들으시고 TF 구성을 통해서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요 안마원을 혼자 운영하시던 시각장애인이 지자체로부터 2억 원이나 되는 급여 환수 통보를 받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인 안마 사업주라는 이유 때문에 활동지원도 근로지원도 시범사업 단계였던 업무지원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낳은 참극이었습니다.

안마사는 법률로 보장된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직업이지만 매우 취약합니다. 벌써 도입된 지 15년이 넘는 경로당 안마바우처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자격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났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도 안마사들은 경로당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우처 수가 인상을 비롯해서 자격수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되시면 이것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자격증에 요하는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재정이 없는 건 정책이 아니겠지요. 모든 게 재정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정말 적극적인 관심과 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증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공약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해당 정책의 사례로는 1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중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도예요, 일자리 형태가. 해당 공약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서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혹시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들어 봤습니다.

○**서미화 위원** PPT 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을요 국민 건강 마음투자사업이라고 포장을 했는데요. 그 실제

는 윤석열·김건희 마음사업에 불과했거든요. 무려 8000억 규모의 신규사업이 온갖 절차를 건너뛰었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졸속 투성이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저도 국민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사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포상금까지 남발했다는 점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고작 4개월 실적 가지고 무려 5억의 포상금을 집행했고요. 심지어 공적조서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부 지자체는 4개월 만에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마음투자사업이 아니라 마음대로 주자 사업이라고 나왔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사업 시행된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실적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 내용인지를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임명되시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산심사 전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검토하셨고 개선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정은경 후보자님, 오전 모두발언에서 아프면 쉴 권리, 즉 상병수당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노동자가 아파서 쉬는 일수는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던 상병수당 본사업을 2년이나 미뤘고 예산도 75.3%나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시범사업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복지부의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ILO의 상병수당 수급 대기 시간 권고 기준조차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보다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정은경 후보자께서 다시 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정책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추진 의지입니다.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ILO 권고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대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 상황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는 유급병가 제도와의 연계 추진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함께 작동을 해서 노동자가 소득 단절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정 유급병가가 없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기 기간은 7일 혹은 14일까지 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감염병 유행 시기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때 상병수당이 없어서 제대로 된 격리나 휴식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얘기가 돼서 시범사업을 3차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에도 포함이 됐고 아마 국정과제로서 국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27년 정도 본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ILO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세 번에 걸쳐서 시범사업 한 것들을 평가해 보고 대기 기간이나 아니면 적절한 수당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평가를 가지고서 모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병수당을 진행하면서 고용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가 채 세워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약자 혐오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의료비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깎아야 한다는 그런 복지부의 고집에 사실 많은 시민사회가 분노했습니다.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과다한 의료 이용,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고, 수급자 중에서 노인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2.5배 그리고 중증장애 비율은 무려 37배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99%는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병원에 갈 뿐입니다.

지난 10일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서 복지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향상 등 정책 지원이 부족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의료급여 정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자리걸음을 해 왔는데 그 책임이 과연 수급자에 있는지 아니면 복지부에 있는지요?

집담회에 참석한 복지부차관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철회 약속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조건부 중단이고 유보적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효력을 완전히 없애는 철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복지부장관이 되신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률제 개악을 계속 추진하실지 아니면 철회하실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은 작년도 중생보에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아마 시행령 개정까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에 대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시민단체하고 면담을 했고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중생보가 열리게 되는데요, 중생보 때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률제 전환뿐만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에 대한 조정이라거나 하는 포괄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대책, 의료급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정률제 전환도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후보자여서 중단을 하겠다, 그게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수진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정은경 후보자님 밤 10시가 다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지원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그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을 장관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기관 보상형 수가 체제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현재 복지부가 정책수가라는 개념과 또 대안적인 수가 체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의료대란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곧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진료지원, 간호료 같은 제도로 적절한 보상과 향후 전담간호사 자격증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적극 검토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이 부분도 보험의 제도하에서 검토를 해야 돼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일단 일은 시키고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늘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와 자격과 이런 조건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시범사업 때도 전담간호사 교육을 간호협회에 맡겼었지요? 그리고 간호협회가 수십 년간 간호사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총괄 관리 권한은 협회가 맡을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의료계 내에서 좀 이견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의 업무와 또 간호사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에는 좀 더 그 제도가 안착되고 제도를 설계하는 데는 복지부의 역할이 좀 더 클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건의료노조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담간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난 시범사업 때 간호협회에서 교육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시고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보건의료노조에서 2025년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를 봤더니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에서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30%였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업무 대체자도 부족하고, 다양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업무 과다, 인력 부족이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제가 의료기관 모성정원제를 도입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1년 후에 시행될 텐데요. 이것은 출산, 육아 등을 위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점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현재 시행, 하위법령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병원이 시행했던 주 4일제 시범근무제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직원 만족도는 물론 이직률과 퇴사율 감소했습니다.

복지부 주관으로 병원 노동자 주 4일제 시범사업 도입하시겠습니까? 시범사업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아직은 고민을 많이 못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계속 주 4.5일제로 근무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상근 근무는 주 4.5일제부터 시작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3교대고 교대근무 특성과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근무제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챙겨 봐야 될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도 세브란스병원 사례는 들었는데요.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대한적십자사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들어 보셨지요? 대한적십자사 노동자 법정수당 추계금액이 약 137억 원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통상임금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는 헌혈의집을 350일 운영해야 되고 주말근무 등 굉장히 고단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적십자사 인력 충원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 예산 확보 적극 나서 주시겠습니까, 이것 법인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송구합니다. 아직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세부 내용을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고받아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입양 아동 관련해서요 해외입양, 국내입양은 친생부모를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기 위해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법에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아동이 친생부모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법제도 마련 긍정적 검토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후보자님,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거취를 표명하든 때에 따라서는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어떤 지적사항인지 듣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이다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이거는 마스크 주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8년간 장기 보유했습니다. 크게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산신고 대상이 시작된 2014년 전후입니다. 2014년에는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대유행이 있었고 당시 후보자는 현장점검팀장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에볼라 때 그다음 메르스 때 마스크 제조업체인 에프티이앤이가 수혜주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2014년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에 배우자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평균 매수단가와 매도단가를 비교해 보면 한 주당 250원 정도 손해를 봤지요.

그다음 2014년 이후에는, 제가 아침에 청문회 직전에 주셔서 저도 이거를 뭐가 뭔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연도도 그렇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의혹을 제기했

는데 아니라 메르스 수해주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전에 줬으면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의혹이 해소가 안 돼요.

보세요. 매수·매도 시기가 2014년 전까지는 실패해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참 잘합니다,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18년 1월부터 3월 7일까지 전량 매도하는데 3월 6일 이틀 동안 1만 주를 매도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15일 뒤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될 때 3580원으로 장 마감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신의 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15일 뒤에 어떻게 거래 정지될 줄 알고 전량을 매도를 합니까?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글을 통해서 당시 뉴스를 찾아보고 하니까 박 모 씨 부사장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나눠서 주식을 전량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도 국민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후보자가 과거에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를 골탕 먹이듯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강원도 평창의 농지를 직접 농사지었다고 했어요. 규모가 1660평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회의장 28배입니다. 그리고 21년 이후에, 그 전에는 논이 절반 밭이 절반이었는데 이후에는 전부 밭이지요. 그때 800평을 지었어요. 이것의 14배입니다. 14배 농사지었다고 했는데 제가 농사지를 때 씨감자, 비료 이런 것 산 내역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냅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가족이 농사지었다고 하면 믿습니까?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벼 베는 사진이 있어요. 벼 벨 때 장갑 안 끼고 슬리퍼 신고 벼농사 짓는 농부 봤습니까? 이런 농부 없어요. 그리고 몇 장 준 것 가지고 27년 농사지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어제도 모 작가가 현장에 가서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밭 800평에 무슨 농사 짓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지금 밭 하나는 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고요, 하나는 감자하고 주키니호박을 심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800평 감자 지으려면 씨감자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그걸 용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12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비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800평 농사지으면 감자 얼마나 수확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박스로 말씀드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정량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지요. 800평이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시골에서 요만한 밭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우리 집 앞에. 이것 힘들었어요, 고추 따는 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그 일 시켜 가지고 하느라고. 그런데 이것의 14배는 못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농사짓는 것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먼저 아까 에프티이앤이 말씀 주셨는데요.

○김미애 위원 아니, 농사짓는 것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농사짓는 거요?

○김미애 위원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오늘?

○이수진 위원 끝났잖아요.

○김미애 위원 아니, 계속 질의할 거예요, 밤새도록.

○이수진 위원 이따 질의하세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농사지었는지? 감자는 얼마나 수확했는지?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국민들 농사짓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웃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냥 말씀하시고 다른 것 잘하시는 것 그것 부각시키시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도 농사에 참여했고 또 현지 공동 경작하셨던 분의 가족들도 같이 했고 또 그 노동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현지 마을의 농업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2차 질의가 지금 끝났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한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을 좀 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이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 초청해서 간담회 하는 장소에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따로 뵈을 때 들었던 얘기 그리고 엇그저께 대통령님 행사에 제가 배석해서 들었던 얘기, 사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뭘 얘기하시냐면, 굉장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님과 형제 모두 이 사고로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시는데 현재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거기가 찾아가기가 좀 어렵고 동시에 또 규모가 좀 작아서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광주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 규모 있게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가 된다면 해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 좀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리고 지금 의료비 지원도 되고는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은 본인들 비용으로 의료비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소급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참사를 이렇게 당하면 경제적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낸다든지 하고 사후에 소급해서 지원받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왠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에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올해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트라우마센터랑 의료비 지원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방식에 대한 고민이요.

알겠습니다.

2차 질의는 마쳤는데요. 3차 질의는 희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의힘 위원님들 전원 다 하시겠다고 하고 또 이주영 위원님도 하시겠다고 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질의의 경우에는 3분입니다, 3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신청해 주신 분들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정 후보님, 이 앞전에 애플티이앤이 마스크 주식으로 이익을 본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시면요 2016년에는 주당 3000원 정도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가 언제지요? 2015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메르스가 오면서 이 주식은 5000원, 6500원, 7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배우자는 주식을 썩 팔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팔아 가지고 2018년 3월 7일에 전량 매도합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상장폐지 직전에 사전 정보가 있었는지 정말 기막히게도 전량 매도를 하여서 총이익은 거의 8000만 원입니다. 처음 주식에 투자한 매수금액은 총 한 8800만 원이고요. 나중에 전부 다 팔았을 때는 1억 6700만 원, 거의 갑절 이익을 보았습니다. 정말 거의 대박에 맞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로 해명은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농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본인은 30년 동안 주말에 가끔 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를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 후보님, 이 농지법은 우리가 헌법에 담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농지입니다. 후보같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현지에 있는 사람이 주로 거의 99% 농사를 짓고 그 배우자와 가족은 가끔 가서 그 농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누구나 이런 상태에서 농지를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완전 농지법을 무력화시키고요 정말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을 우롱하

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정은경 후보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살아온 궤적, 정말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후보님은 평생 공직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준법정신을 해석하는 거는 본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본인은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가끔 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면 향후 장관님이 되셔도 계속 주말에 가서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정말 토·일요일 없이 바쁜 직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우기는데 제가 이 앞에 있었던 여가위의 강선우 후보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신 겁니까?

○서명옥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답변을……

○위원장 박주민 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메르스하고, 제가 아까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코로나하고의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하고의 관련성은, 제가 그 주식의 매도 시간이나 이런 거를 지금 따져 보지 못했는데요. 메르스 때는 제가 원래 메르스 업무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질병예방센터장으로서……

○서명옥 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 후보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따져 보지 않았다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는 아는데요. 이게 메르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해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5년도 10월 달, 12월 달에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보통 5월에 시작해서 6월 말 정도에 실은 끝났기 때문에 메르스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서명옥 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서명옥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주가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르스 당시에는 제가 메르스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질병예방센터장이었고 메르스 유행이 커지다 보니까 업무 지원으로 그 업무를 6월 달부터 맡게 됐기 때문에 그 업무로 인한 정보를 취득해서 연계했다? 또 그리고 마스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장관이 되면 물론 주말에도 시간이 없

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상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다시 질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질의하실 분들의 신청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예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박주민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김예지 위원 저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하세요.

○김예지 위원 저희 질의 아까 받았는데, 지금 3차 질의는 저희만 받고 우선 시작을 했으면 그냥 3차 질의는 받은 사람 하고 지금 다시 받으시는 거는 4차 질의부터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이게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 하다가, 그러니까 질의하는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또 들어오고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이주영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이수진 간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청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3차 질의 때. 그래서 지금 김미애 간사님의 질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청을 안 받겠다거나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그러면 신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3차 질의, 나머지 분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사님께 보여 드리세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순서지를 좀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장관은 정치와 국민 건강이 충돌할 때 전문성 있는 부처 의견을 대통령에게도 강하게 의견 개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동의합니다.

○안상훈 위원 그러실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 관련해서 들은 그동안의 행적 관련해서 보면 그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 우한에서 먼저 시작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그리고 초기에 미국, 일본, 대만 등등 주요국은 중국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비등했고요. 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항균요법학회 등 우리나라 모든 전문 단체에서도 당시 청장님께 강하게 중국 전체 다 막아라 이렇게 의견 개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중 청와대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굉장히 주저했고요. 후보자께서 장관 보고를 하십니다. 전체는 모르겠지만 5개의 성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그렇게하기로 결정을 했고 총리에게도 구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2월 2일 날 총리 주재 중수본 열렸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장관·총리 다 먼저 청장 말씀하신 거 듣고 최소 5개 성 막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후베이성, 우한 하나만 막아도 된다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가지고 총리께서도, 심지어 당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총리께서도 ‘아니 청장, 소신껏 얘기해도 된다. 정치 눈치 보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했는데 끝까지 그냥 하나만 막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후베이성 하나만 막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만약 또 다른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조치의 실행 가능성과 미치는 파급효과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판단을 해서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안상훈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와 국민 안전, 전문성 사이에서 정치 쪽 편을 드신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정치권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상훈 위원** 아니, 심지어 당시 복지부장관, 총리도 최소 5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청와대 쪽의 손 들어 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험도평가를 해서 어디까지 입국금지를 할 건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청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또 산자부도 있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검토를 했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의사결정에 맞게끔 조치를 하는 게……

○**안상훈 위원** 저희가 증인 신청을 못 했지만 회의 때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다음에 최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분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분 잘못 누르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장관 내정 통보는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것은 조금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보운 위원** 그러면 사전질문서는 언제 받으셨고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 시기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

다.

○**최보윤 위원** 그러면 재산 등 증빙자료는 누구로부터 언제 요청받아 언제 제출하셨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인사검증팀이 자료를 보내와서 그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공직기강 담당인 것 같은데 인사검증팀에게 보냈었습니다.

○**최보윤 위원** 언제 요청받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최보윤 위원** 그러면 최종 검증 통과는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발표 때까지 알 수 없었고요. 발표하기 전에 발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윤 위원** 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사항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해할 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국민께 답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서면으로도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을 회피하셨고 또 이런 부분은 의도적 은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여야가 하루 종일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검증의 기준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여야 될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남 창원 프라임요양병원 근무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병원에서 숙소 사용하셨다고 하시긴 했는데 전혀 이 관련된, 주 며칠 근무했는지 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하실 정도로 실제 입증자료는 아예 제출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출근하면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문제가 됐었는데 2021년부터 22년까지 남편의 월평균 소비가 약 13만 원에 불과해서 소득에 비해서 정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병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답변한 걸 보시면 ‘관련 자료를 생성할 수 없다’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화면을 지금 제가 못 봤는데요.

○**최보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자료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후보자는 사실 보건의료 분야의 고위공직자였고 남편은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공직 윤리와 책임 문제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혹이 끝까지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에프티이앤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총 약



8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전 국민 방역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마스크회사 주식을 사고 이 회사 주가가 이례적으로 최고가 기록하고 거래 정지가 되기 전까지 타이밍 좋게 거액의 이익을 취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제가 그것을 고의로 은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고 충분하게 사전질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증을 받고 나서 언제 인사가 결정됐느냐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표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다는 그 시점은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보윤 위원** 장관 내정 통보에 대해서 답변 거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내정 통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은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선이 지나고 나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충분하게 저는 검증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프라임요양병원 근무 관련해서는 병원 바로 옆에 숙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안에도 숙소가 있어서 병원 안에,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계속 머물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녕이라는 데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출퇴근도 어렵고 계속 병원에서 지냈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이나 외식도 직원들이 거의 하지 않고 별도로 내부에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대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것을 다 현지에서 제공을 받았고 또 병원에서 복지후생비 같은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로 경비를 소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역까지 제출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보 요구가 아닐까…… 어떤 것을 저희가 해명해야 될지, 지출이 좀 적었는지 병원 지원을 받은 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보윤 위원** 관련 자료, 후보님께서 답변을 저렇게……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자료여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됐습니다, 후보자님.

○**최보윤 위원** 생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

○**위원장 박주민**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의 장종태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게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태 위원** 전국에 권역별로 4개소를 신설이나 지정하고 그리고 재활센터 10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최초로 대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도에 완공이 돼서 운영 2년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건립 당시에 기재부에서 100억 원의 건축비가 지원됐는데 지원 당시에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을 운영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약 34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어린이재활병원이다 보니까 적자가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데서 34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만일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건립될 4개소의 재활병원, 10곳의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적자가 나서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 그러면 다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혀 못 하겠다 해서 지방에 떠맡기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의 근거를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개정안을 내서 입법 조치를 해 뒀는데 이것을 장관이 되시면 깊이 있게 검토해서……

이게 대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의,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끊임없이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병원을 찾아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는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었는데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병원 건립이 시작이 됐고 지금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재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원 부담, 국가의 부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재활이 워낙 어려운데 어린이 재활은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재활은 또 지리적인 접근성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수가체계로는 운영비를 다 보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아마 대전에 있는 그 재활병원은 입원실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수가와 재정으로 어떻게 운영비를 보전할 건가 또 그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해 보고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거든요.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정은경 후보님,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정치와 전문성이 충돌할 때 우리가 전문성을 선택해야 되는 위치로 가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가 유행하자 국내 여러 감염 전문가께서 한결같이 신속한 백신 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영국 이런 데는 사실 수십억 도즈의 백신 계약을 미리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모더나·화이자 백신 1도즈도 확보를 못 했었지요. 당시 질병청의 수장이셨고 그리고 사실 백신의 선구매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모르셨을리가 없는데 그러면 K-백신 개발의 성공이라는 정치적 바람 때문에 혹은 명령 때문에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백신 확보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백신을 확보할 때 투 트랙 전략을 했었습니다. 자체 개발도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수입해야 되는데 어떤 백신을 얼마나 수입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백신이 임상시험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됐어서……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전문성과 그리고 정치적인 바람이 충돌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성을 우위로 갖고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책이었고 사망자와 직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안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자급률도 25%밖에 안 되고 우리가 중국과 인도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백신 자급률도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안보를 전문성과 정치가 충돌했을 때 이것을 그냥 시스템으로, 이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필수약품 비축,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등과 같은 것은 중장기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국방안보에서 외교안보 그다음에 지금은 경제안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건안보, 보건통상처럼 복지부가 잘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보건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특히 팬데믹 때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필수약품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약품의 완제나 원료의약품을 확보하는 것 또 자급화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건 공감하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백신에 대한 건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국민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선구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었지 그게 어떤 정치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백신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내부적으로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정권 말에 여야 합의로 일정 수준의 모수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매일 누적되고 있는 적자 폭이 큼니다.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보여 주셔서, 625억이라고 봤습니다.

○이주영 위원 매일 625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3분 동안에 1억 3000만 원가량이 계속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딱 10년 뒤에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국감 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주식 비율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에 대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작년까지 굉장히 높게 나오다가 올해 상반기에 거의 1%가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표치를 5.5%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관세정책도 있고 여러모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지고 가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전문성이고 두 번째는 투명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주셨듯이 전문적인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관직을 수행하시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 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1200조에 대한 기금 투자정책 방향성을 당연히 설정하실 거고 다양한 대외비 정보도 아마 접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는 사실 개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렸고 실제로 라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직무관련성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후보님 본인께서 하신 것도 아니기는 한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 1억 2300 정도를 현금화하신 것을 그 당시에 혹시 알고는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아니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알지 못하셨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는 재산신고할 때 정산을 해서 그때 알게 됩니다.

○이주영 위원 앞으로 민감한 재정 사안에 대해서 많이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대외비 정보를 가질 만한 분의 아주 가까운 분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거래를 했던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연금 운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저도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고 하면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에프티이앤이 관련해서는 2017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서 직무하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판매에 대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들은 길로는 공매도 금지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그 부분을 다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매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판 게 아니라 2017년부터 팔기 시작해서 다른 뭐 신주인수권이나 이런 것도 매도를 했다고 들어서, 그건 추후에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이주영 위원 다른 주식들을 보면 꽤 장투를 하는 편이시고 그런 급격한 변화가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정황상 사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배우자분과 상의를 좀 더 하셔서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큰 기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직을 맡으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뢰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소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든 위원회로든 추가 소명자료 혹은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세부 주식 거래내역은 2010년부터 이때까지를 다 드렸는데요.

○이주영 위원 내역이라기보다 그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야당 위원님께서 인사검증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을 하면서 정원 배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무늬만 지방의대인 건국대·울산대·성균관대 등의 대학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충주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 모병원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국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 주면 그게 충주 지역의 지역·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배출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건국대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이 지역·필수 의료를 책임지느냐를 기준으로 정원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가 이번에 정원 하면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정원을 좀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국립대학교병원이 권역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원 배분하는 데서 그런 공공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윤 위원 앞서 후보자께서 현재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소위 지역완결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국립대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도 일정 지역을 책임지는 방식이 되어야 우리가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국립대·사립대 병원 모두 자기가 어떤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추계해서 그 의과대학에 배정하는 정원과 연계해야 대학이 더욱더 지역·필수 의료를 책임지기 위한 책임성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의대 정원의 배정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또 수급센터도 지정을 해서 이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의료인력도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 수요와 또 과목별 수요를 같이 고려해서 그걸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 단위를 할 건가 이런 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 위원 그런데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이 지역·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수급추계위원회나 수급센터에서 작업을 할 때 그런 기준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은 하는 이유는 지금 특히 보건의료가 재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보건복지의 수장이 정해져서 극복을 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보건의료노조에서 파업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빨리 보건복지의 수장을 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오늘 하면서, 배우자의 문제지만 농지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들이 많이 어느 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검증들이 이뤄지게 되면 가급적이면 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안부는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행안부도 행안부장관을 오늘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했던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후보님한테 말씀드릴 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가급적이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의 수장을 빨리 정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보건의료의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후보자님, 혹시 줄리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괜찮습니다.

○**김예지 위원**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요. 태백이라고 저와 같이 다니는 아이인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법적 용어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갑자기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요.

○**김예지 위원**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보조견.

○**김예지 위원** 보조견에는 안내견, 보청견 등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공간이 나올 텐데요, 어디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

○김예지 위원 잊어버리셨네요. 서울대병원 로비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태백이랑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질문 주시는 거면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들어갈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김예지 위원 다음 페이지 또 주세요.

여기 식당인데요. 여기 병원 구내식당이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좀 당황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왜 보여 드렸느냐 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조견들이 출입 거부를 당했어요. 그게 정당한 사유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다 방해를 받아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가 돼서 지난 4월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되어서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또 그다음에 조리하는 곳의 창고를 제외하고는 이게 딱 명확하게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이거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이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최근 5년간 출입 거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를 봤는데 18건밖에 안 됩니다. 실상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별 사례 말고, 이거는 이동에 대한 차별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차별을 다루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인데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장차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실 텐데요.

이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하고 세트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다른 구조가 왜 다른 구조냐면 장차법에는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복지부 법인데 사실상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세부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면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고 법무부장관의 시정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이나 그 외에 법원의 적극적인 구제조치, 이게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일까요? 법무부지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옆에 있으니까 안내견 이 사례를 들었지만 이건 그냥 예고, 좀 가볍게 좀 덜 줄



림게 가시라고 제가 들어 드린 예고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권리침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는 복지부인데 결국에는 담당하는 거는 법무부잖아요. 그리고 인권위가 이거를 권고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벌써 되신 것 같네. 아무튼, 거의 되셨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장애인차별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겼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는 오늘 말씀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실효성 있게 이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말씀 주신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도 고민 중이고 아마 서미화 위원님이나 최보운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개정안이나 아니면 전면개정안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법을 구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논의해 봐야 할 문제고,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후보자님으로서의 어떤 이런 생각을 사실 들어 보고 싶었고 그 계획이라든가 혹시 있으신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그런데 정말 야당 위원님들 너무하시네요. 하루 종일 똑같은 주식 질의, 농지 질의, 별로 다르지도 않은 내용을 발언자만 바꿔 가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누가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농해수위나 정무위 청문회인 줄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너무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려워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한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서 후보자 배우자가 투자한 에프티이앤이라는 주식이 2018년 3월 22일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3월 초, 정확히 말하면 3월 7일까지 전량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15일 후에 되는데 거래 정지될 거를 어떻게 알고 주식을 다 팔았냐, 이거 내부정보 빼돌려서 미리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이면 엄청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후보자는 주식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할 능력도 없으실 거고 직접 투자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에프티이앤이라는 주식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2018년 2월 9일 자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공매도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소영 위원 야당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행위입니다. 남의 주식 빌려다가 매도 주문을 때려 넣는 거예요.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 하락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월 말부터 2월 9일까지 엄청난 양의 공매도를 때립니다, 누군가가. 처음에는 1억씩 때리더니 나중에는 21억을 때려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2월 9일에 이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 무슨 신호냐면 이것 망할 주식이니깐 빨리 팔고 도망가라, 공매도 세력이 작업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분은 2018년 2월 9일에 이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가 뜨니까, 그리고 당일엔 주가가 14%가 죽 빠집니다. 그래서 놀라서 며칠 지켜보다가 전량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전 정보가 진짜 있었으면 왜 이것을 6000원대에 팔았겠습니까? 8000원대에 팔았겠지요. 2월 9일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 공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 폭락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참 뒤에 6000원 초반대에 매도했습니다. 전형적인 초보자의 투자 행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형사처벌이 어마어마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요?

○김미애 위원 그렇게 잘 아는 것을 미리 내지 그랬어요.

○이소영 위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 이름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미리 내시지 왜 오늘 아침에 내요, 그러니까.

○이소영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이것 검색 안 해 보고 무슨 이런 의혹 제기를 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까? 제가 전문가예요, 이것만 하게?

○위원장 박주민 아이고, 아이고.....

○이소영 위원 전문가 아닌데 왜 이런 의혹 제기해요?

○김미애 위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소영 위원 왜 이런 의혹 제기를 알아보지도 않고 합니까?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김미애 위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그만해요, 좀!

○이소영 위원 이렇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예요?

○김미애 위원 무슨 아니면 말고예요!

○이소영 위원 아니면 말고잖아요!

○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미애 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미리 냐어야지!

○이소영 위원 겁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왜 안 내요?

○이소영 위원 겁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일단 이소영 위원님 질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질의를 마칠 때까지는 듣고 계셔 주시기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권을 얻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됩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가……

○이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받고 하세요.

○김미애 위원 제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 질의가 동료 위원을 비방하는 게 전부잖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저희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질의 시간 동안에는 질의를 좀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으시거나 신상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회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김미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저 자료 있으니까 4차 가야겠네.

○서명옥 위원 4차 갑시다.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소영 위원님은 질의 다 마치신 거지요?

○이소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서명옥 위원 해명해 드릴 테니까 4차 갑시다. 아주 엄청 잘난 척하시니까……

○김미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제가 상당히 유감인 게 지금 야당 위원을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서명옥 위원 아니, 당사자 후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 받아 가지고 우리보고 함부로 그래?

○위원장 박주민 서명옥 위원님, 지금 자당 간사님 발언하고 계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명옥 위원 본인이 후보이신 것 같아. 장관후보인 것 같아.

○김미애 위원 저렇게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습니

까?

그리고 오늘……

○서명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복지위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김미애 위원 잠깐만.

제가 거래내역을 후보자랑 지난주 금요일 날 약속을 했어요. 월요일 날 그때 주셨으면 돼요. 모든 위원이 이소영 위원처럼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에서 다른 질의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봤으면 구태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청문회 직전에 딱 던져 놓고 약 올리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게다가 질의에서.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제가 구글 뉴스를 보니까 2018년 3월 28일 자 아시아경제 ‘오너가는 팔았다, 에프티이앤이 거래 정지 전 박종만 부사장 주식 처분’ 이렇게 언론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매도했으면 수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이것만 가지고, 주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제출 기한을 드렸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겨우 3분 질의하는 것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정책질의 할 것까지 열두 개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주셨으면 이런 일이 최소화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근거 없이 사실관계 파악 안 했다, 사실관계 파악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도외시한 채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렇게 폄훼하듯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면 사과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미애 위원 무슨 사과를 할 일이에요, 그게!

○안상훈 위원 아니,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이소영 위원 아니, 지금 후보자는……

○김미애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돼요, 위원이!

○이소영 위원 말 한마디, 기억 하나 잘못된 것 가지고도 사과하라고 몇 분이 말씀을 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좀 남이 발언할 때 가만 계세요.

○이소영 위원 제가 발언할 때 아까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김미애 위원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위원장 박주민 지금 시간 남으셨어요. 이번에는 김미애 간사님 시간이 남았어요.

○김미애 위원 이소영 위원님이 오셔서 이 상임위장이 정말 소란스럽게 된 거예요.

○이소영 위원 저는 위원님 같은 간사님 처음 봐요.

○위원장 박주민 둘이 대화하지 마세요. 둘이 대화하지 마시고……

○이소영 위원 다른 상임위는 이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둘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 김미애 위원 이소영 위원님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 이수진 위원 개별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 위원장 박주민 그만, 그만, 그만.
- 서명옥 위원 우리 예전에 안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안 그랬다고요.
- 이소영 위원 그래서요?
- 이수진 위원 서명옥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개별 위원한테.
- 위원장 박주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 서명옥 위원 없었어요, 우리는.
- 이소영 위원 아니, 어떻게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 백혜련 위원 사과할 테니까 그냥 채택해 주세요, 대신에.
- 위원장 박주민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지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한지아 위원님, 됐어요, 됐어.
- 이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 백혜련 위원 사과할 테니까 채택해 주세요.
-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 김미애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주민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여러 논의 끝에 자료제출할 시간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늦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반면에 자료제출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는 이례적인 운영도 제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자기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가면서 이후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듣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 김미애 위원 아니, 이것을 좀 기준을 정해 주세요.
- 한지아 위원 (손을 들)
- 위원장 박주민 한지아 위원님, 15분 이상 손 들고 있어도 발언 기회를 안 드릴 거예요. 손 들고 계세요. 안 드릴 겁니다.
- 한지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하시네요.
- 위원장 박주민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더 끄느니 질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있으면 김미애 위원님 질의 시간이 와요. 이수진 간사님 하신 다음에 바로 김미애 간사님 발언 기회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진 위원 지금 시각 11시가 지났는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10시에 인사청문회

마감하고 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이 지역구인 위원님은 1차 질의를 하시고 지역에 내려가신 상황이고 또 국민들께서는 지금 불안불안하게, 힘들게 이 순간순간을 버티고 계실 텐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이 참 큼니다. 행안부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오늘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대응적 결단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당일 날 채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미애 간사님 말씀 중에 자료제출을 좀 빨리 해 주지 그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너무 늦게 자료제출한 것이다라고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일찍 하셔서 이런 말은 안 나오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몇 번째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앞에서 한 일곱 번, 여덟 번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 시간 자료 검토할 시간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명석한 보좌진들이, 동료 보좌진들이 다 검색하고 분석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실제로 명쾌하게 사실이 아닌 것과 그리고 또 저도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공매도 얘기는 워낙 유명한 거라서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 하면 대부분 겁나서 팔고 그런다는 것으로 저희도, 그 정도는 저도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정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근거가 없고 그리고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가 그렇게 설명했다라면 후보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도돌이표도 아니고 우리가 일정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검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게, 한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 네다섯 번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후보자가 충분하게 답을 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고 사실 언론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또 지금 계속 남부지방의 이런 큰 피해 때문에 다들 정치인들이 또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사실 건강 문제라든지 심리 안정 문제라든지 복지부 할 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고개를 끄덕임)

○**이수진 위원** 이런 일들을 빠르게 인사검증을 하고 저희가 채택까지 하고 또 야당 위원님들 질의 시간 충분히 드렸으니까……

○**김미애 위원** 그렇게 모멸감 주는 발언을 하면서 무슨 끝까지 해요?

○**이수진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마음이 생기다가도 사라지네.

○**이수진 위원**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김미애 위원** 서로 존중해야지요. 무슨 넓은 마음이라……

○이수진 위원 지금 상황의 특별함, 엄중함을 좀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그 혹독한 시절에도 다……

○서명옥 위원 (웃음)

우리 열받았어요.

○백혜련 위원 서명옥 위원님, 얼굴이 초췌해 지금.

○한지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박주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지아 위원님이 15분 이상 손 들고 있어도 제가 기회 안 드릴 거예요.

일단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일 없이 어려운 법 쟁방, 양당 간 협의해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참 제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 위원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 참으로 저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님을 평소에 합리적이고 담백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작성한 것 아니면 그렇게 던져 주셔서 가지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혼란을 주셨는지 상당히 유감입니다. 농지만 해도 제가 이것을 뭘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자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가 여섯 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지, 농기계 보유 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약·비료 등 구매 내역, 보험 가입 여부, 실제 수확·판매 내역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 하나도 제출한 게 없어요. 말뿐이에요.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이 60평인데 28배, 14배가 그 규모란 말입니다. 그리고 감자 농사를 지으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800평에? 수십 톤이 나옵니다. 그것 판매를 했는지, 농약을 얼마를 샀는지 단 하나도 제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덮어 두고 믿어 달라고 하고. 그것 어느 국민이, 감자 농사짓는 분이 믿겠습니까?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십시오. 전 소유자 배우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평소 내가 농약을 치고 필요하면 사람도 쓴다. 사실상 내 땅처럼 농사짓는다’. 그리고 이분이 5년을 직불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 대단한 800평의, 1600평 규모의 수십 톤의 수확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데 이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먼저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미애 위원** 아니, 농사 자료 말씀드린 거예요, 농산물 자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농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까지는 논농사를 지어서 쌀은 자급자족으로 썼고요. 그 밖에 뭐 감자도 심고……

○**김미애 위원** 800평을 자급자족 썼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가 쓰고 친척들도 주고……

○**김미애 위원** 그러면 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감자는 저희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같이 공동 경영, 공동 경작하신 분께서……

○**김미애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수확물이 얼마나 나오니까, 한 해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제가 그것을 정량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수십 년 지었는데 왜 정량화가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박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이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명쾌하게, 두 가지 의혹 아닙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투기했는지 그것 하나, 농지법 위반 의혹 하나.

누가 봐도 이것은 자경을 안 했어요. 자경 판단 기준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자료 하나도 제출 안 하시고. 통상적으로 50평·100평이면 자료 없을 수도 있어요. 800평·1600평은 자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김미애 위원** 농지법 위반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농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부족함이 아니라 왜 증거자료 하나가 없습니까, 수십 톤의 수확물이 나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져다 쓰고 또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농사를 지었던 그분이 본인의 농작물하고 같이 처분을 하신 걸로……

○**김미애 위원** 아니, 비료 사고 씨감자 살 때도 다 현금 지급했습니까? 어디에서 샀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그게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을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담백하게 말씀 잘하셨잖아요. 왜 이 부분만 가면 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의 28배라니까요, 그 규모가.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농사를 짓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김미애 위원 그래도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그 위반 여부 인정 안 하시고?

○위원장 박주민 아니, 아까 유감 표명은 하셨잖아요, 몇 번.

○김미애 위원 두루뭇술하게 하면서 마치 본인이 주된 경작을 한 것처럼 하잖아요. 보조지 주된 경작은 서 씨 그분 아십니까? 서 씨인지, 전 씨인지, 홍 씨인지…… 매도인 아니에요, 매도인?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한지아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무리하고 가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말씀드린 대로 공동으로 경작하신 그 가족하고 저희 가족이 같이 농사를 지었고 아무래도 그 현지에 사시는 가족분들께서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매년 수확물이 다르기는 했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리고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경작하셨던 그 가족분들께서 본인들 밭에서 나오는 소출하고 이것을 같이 처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여쭙보지는 않았습시다.

○위원장 박주민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한지아 위원 의사진행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한지아 위원 우선 저희가 복지위에서는 질의할 때나 답할 때나 분위기가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미애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2월 9일 날 공매도가 일어났지만 1월 5일 날 이미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가격 상승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치 그런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이 질의한 것 같더라는 어떻게 보면 그 발언 자체, 그 질의 자체에 대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위가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웃기고 있네’라는 것을 상임위장에서, 복지위에서든 여가위에서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다시 재차 반복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제가 운영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이소영 위원 저는 신상발언 안 주시나요?

○위원장 박주민 예?

○이소영 위원 신상발언 안 주십니까?

○위원장 박주민 만약에, 저도 사실 이소영 위원님께 신상발언 드리고 싶은데요. 효율

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청문 채택이나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박주민 4차 질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가 안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희망자만 하기로. 희망자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4차 질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지금 거의 11시 반이 다 돼 가고 있고요 여당 위원님들은 거의 하지 말자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4차 질의를 좀 안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김미애 위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2명 정도씩만 질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미애 위원 희망자만……

○위원장 박주민 아니, 여야 2명으로 제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아예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하지 마시고 우리만 합시다.

○위원장 박주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야 2명씩 좀 정하시고……

○김미애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미 여야 간사 간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저희가?

○위원장 박주민 협의를 안 하셨다는데?

○김미애 위원 아니, 했잖아. 그러면 협의 안 하고 오늘 이게 진행됩니까?

○이수진 위원 7분, 5분만 협의했지 3차 질의는 희망자였지요. 그런데 지금 다 하셨잖아요.

○김미애 위원 3차, 4차 희망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수진 위원 4차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이수진 위원 지금까지라니요? 저 간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김미애 위원 너무 일방적이야.

○이수진 위원 뭐가 일방적이에요? 논의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주민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2명씩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할 테니까요 2명 누구인지 좀 정해 주시고요.

일단 이소영 위원님 손 드신 것 같으니까…… 2명을 정해 주세요, 이수진 간사님.

김미애 간사님도 2명을 정해 주세요.

서영석, 이소영 이렇게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두 분 누가 하실래요? 이주영 위원님 하시고 또 한 분 누구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주영 위원님이 손 드셨잖아요.

○김미애 위원 우리는 다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기회를 주셔야지요 어떻게 그것을 자릅니까?

○위원장 박주민 아니, 여야가 협의가 안 될 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것은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수진 위원** 보통 간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원래 3차가 희망자고 4차는 딱 지정해서 하잖아요.

○**김미애 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님이 거기서 그만하라고……

○**위원장 박주민** 지금 한쪽 정당에서는 하지 말자,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협의는 안 됐고, 한쪽은 아예 하지 말자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2명씩 정도라도 하자고 중재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해 왔습니다.

○**이수진 위원** 3차 질의가 희망자고요, 4차는 그만하시지요, 합의된 게 없으니까. 합의된 게 없으니까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박주민** 3차까지는 그렇게 했지요.

빨리 정하세요. 빨리 정하십시오.

이주영 위원님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한 분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 위원** 지금 4차 질의 두 분 하시면 채택해 주실 거예요?

○**위원장 박주민** 지금도 이수진 간사님은 하지 말자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수진 위원**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합니까?

○**김미애 위원**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서로 존중이나 하면서 그게 되는 거지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4차 질의하지 마시고. 지금 11시 반인데……

위원장님, 무슨 회의를 11시 반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밤 12시 넘기겠다는 건데 보여주기식 청문회도 아니고 도돌이표인데 도돌이표 청문회를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빨리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해 주세요. 빨리 정해 주세요.

일단 이주영 위원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님이 곧 정하실 것 같은데요. 정하셨습니까? 간사님이 하시는 걸로?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의사진행발언 이제 그만하시지요. 제가 정했으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향후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원장 박주민** 향후를 위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위원**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진 위원** 뭘 들어봐요?

○**위원장 박주민** 그게 아니라 여야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위원장이 지금 방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한쪽은 아예 하지 말자고 그러고 한쪽은 완전히 다 하자고 그래서 제가 2대 2로 하자고 정한 겁니다. 이 정도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위원장한테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어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 박주민** 아니,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부분은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하시든지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위원장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열두 번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주영 위원님 하시고 김미애 간사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이소영 위원님 하고 서영석 위원님 하시는 거니까 서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때문에 1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고 또 7월 24일 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우선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위원회인데 하루 종일 정말로 정책을 책임질 후보자를 뽑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끝없는 의심과 또 흠집 내기, 발목 잡기로 유능한 공직자후보자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윤석열에게는 끝없는 쉴드를 쳤던 분들이 막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명백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만 좀 해라, 억지 부리는 자리 아니다 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후보자님, 씨감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강원도 감자에는 어느 품종이 있는지, 수확량이 평당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감자 농사 면허시험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농사를 가족들이 함께 짓기는 했지만 주로 배우자와 현지 지인들이 농사와 관련된 주요 결정도 하고 내용도 잘 아시겠고 또 후보자가 그런 것 모르는 게 후보자 가족이 실정작을 안 했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창해에탄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주식, 후보자가 사라고 지시하거나 팔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고 배우자가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배당주라고 사신 거고 후보자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보유 현황을 알게 된 거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직무관련성 심사도 받으신 거고 이미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없다고 했고 재심사 대상도 아닌데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대상의 중심이었는데 코로나19 당시 손소독제 사용이 급증했으니까 둘 사이 관계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의혹을 만들고 키우기 위한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유하거나 팔거나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명백한 증거 없이 ‘이러지 않을까’ 하는 확증적 우려만으로 교묘하게 일부 사실만 부각하고 실제 맥락과 실제적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늦은 밤까지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뽑은 후보자인 만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실지 각오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초고령……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답변을 드릴까요?

○**김미애 위원** 지금 마지막 질의까지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청문을 채택하자고 하면서?

○**위원장 박주민** 아니, 다른 분들의 발언에 자꾸……

○**서영석 위원** 후보자님 말씀 들으세요.

○**이수진 위원** 개별 위원들의 얘기잖아요. 좀 넘어갑시다, 간사님.

○**김미애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수진 위원** 간사님, 넘어가요.

○**김미애 위원** 야당 위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그렇게 하나하나 트집 잡듯이 해야 됩니까?

○**안상훈 위원** 저희가 하루 종일 거짓말했습니까?

○**김미애 위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미리 자료를 냈어야지요. 우리는 무슨 이 어려운 국면을 모릅니까?

○**이수진 위원** 간사님, 그만합시다. 동료 위원이 발언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영석 위원** 자, 의사진행을 해 주시고요. 후보자에게 답변을 들으세요.

○**위원장 박주민** 예.

○**김미애 위원** 그 발언도 어느 정도라야지요. 예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일단은……

○**김미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서……

○**이수진 위원** 아니, 동료 위원한테 예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맘에 안 든다고 예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간사님.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김미애 위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웃기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수진 위원** 아니, 이견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김미애 위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도 의견입니까?

○**이수진 위원** 그것은 공식 발언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뒤끝을 보이시면 됩니까, 간사님?

○**김미애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 정도 존중도 없이 어떻게 마주 보고 앉아서 상

임위를 운영합니까?

○이수진 위원 아니, 어디 가세요? 위원님들 어디 가서?

○김미애 위원 그리고 끝까지, 4차 질의인데 야당 위원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저희도 정책질의 하고 싶어요.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것의 의미가 퇴색하는데 마무리까지 좀 하시지요. 한 이삼십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 정책질의 오늘 몇 개를 준비했는지 아세요? 열몇 개를 준비했어요. 이것 보세요.

○이수진 위원 보통은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인사청문회 초선 때 보면 저희 초선도 그렇고 2·3차 질의부터는 정책질의를 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정쟁하지 않으세요.

○서영석 위원 정책질의를 하시지 왜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하냐고요, 준비한 정책질의를 하시지.

○김미애 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했던 말이에요.

○이수진 위원 정말 이번에는 아주, 저는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실망했어.

○김미애 위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수진 위원 위원님, 보건복지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미애 위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이수진 위원 2·3차부터는 정책질의 했어요.

○김미애 위원 이렇게 안 했어요!

○서미화 위원 아니, 윤석열하고 장관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이수진 위원 민주당도 2·3차부터는 정책질의 했어요.

○김미애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수괴하고 싸운 거지, 우리는.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래, 내란수괴는 갑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서미화 위원 아이고, 참말로.

○이수진 위원 아니, 인사청문회를 왜 그렇게 하세요, 인사청문회를?

○김미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끝까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 상임위를 같이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간사님……

○이수진 위원 어디 가세요?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뭐 농수산물 양도 필요 없다, 대체 위원들한테 뭘 어떻게 공격하십니까? 같은 동료 위원 아닙니까? 복지위 정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 각자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각자 의견을 얘기했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최보운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매도하는 건 좀……

○**이수진 위원** 그것 아니시라고 충분히 서너 번 반복하셨잖아요.

○**최보운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 서너 번 반복하셨잖아요, 언론에서 다 봤고.

○**최보운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반복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회의록에 다 작성됐고. 회의록 나중에 보세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후보자님, 간단하게라도 서영석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고요.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됩니다. 그 전에 절차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초고령화 그리고 또 지역소멸 또 기후변화 같은 복합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소득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가 큼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그런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저도 처음 경험하는 보건복지위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를 떠나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제가 느끼기에는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 주고 계신 부분들이 또 민주당에도 많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은 과정을 거쳐서 함께 채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의대생들도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움직임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 지명

이 되시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환영의 성명이 나온 것은 우리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말이 뭔지 알아들어 줄 사람일 것 같다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법으로 대표되는 사법 리스크의 해소 그리고 전공의 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우개선을 넘어서 교육과 수련의 질 보장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리고 비현실적인 진료 환경에 대해서는 또 건정심이나 보정심 개편 그리고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꾸리는 데 있어서의 합리성을 아마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이 의학을 전공하신 입장이시고 또 임상을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공의들 중에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있고 군 입대를 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 혹시라도 다시 수련을 나머지를 받기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추가 수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주로 고연차들이 많이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의 배출의 연속성이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에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하나의 의국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수련 연속성, 교육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보건의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인턴과 본과생들이 문제인데 국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국시 시스템 자체가 실기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대로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수련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전공의협의회도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의 그런 복귀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좀 찾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련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교육의 질이 강조돼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한 개편을 좀 해서 수련의 어떤 목표나 세부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증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학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원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혹시 의과대학생들이 좀 더 시험을 더 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영 위원 아니요, 한꺼번에 늘어난 인력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트리플링같이 이렇게 졸업생이 갑자기 많아지면 의사 고시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국시원하고 좀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와서 오늘 정식으로 처음 회의하는 자리인데요, 그게 오늘 인사청문회입니다.

저는 공직후보자가 무슨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팩트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과해야 되는 일이고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한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매도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국민 상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이라고 해서,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관하게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나중에 가서 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한 번 실추된 명예는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문회 시작하고 지금 자정을 앞둔 시간까지 후보자 인생에서 아마 이런 범죄자 취급 처음 당해 봤을 텐데 그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거나 잘못 알고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설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정하고 자신이 잘 몰랐다 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는요 이제 후보자 신상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 했어요. 왜냐하면 주질의 내내 주식과 농지 얘기만 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 취급을 주질의 내내 했기 때문에 적어도 세 번째 추가질의를 들어서는 저는 정책질의를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장만 덮어 놓고 반복하면서 이제는 확인도 안 한 의혹 제기를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야당 위원의 질의를 공격한다? 야당 위원은 허위사실이나 가짜 주장을 해도 되는 무슨 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자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한지아 위원님께,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데요. 1월 5일부터, 1월 달부터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2018년 2월 9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고시 전에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1월 초 기준 1만 8000주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1만 3000주, 그러니까 대부분이 2월 9일 공시일 이후의 매도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거래의 양태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내부자 거래 이런 거라고 의심할 수 없는 그냥 초보자의 놀란 반응 그런 행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오늘 인청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해 버리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의도적인 파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소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초선 시절을 보냈고, 다른 상임위지만, 1차 질의는 후보자의 인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을 했고 또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인청을 통해서 소명이 됐고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국민들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가 궁금하시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바로 그다음 단계로 갑니다. 저도 그래서 2차·3차 질의할 때는 정책질의를 했었고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4차까지 하자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후보자의 농지와 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이미 다 소명이 된 것들을 지금 세 번, 네 번 그리고 자료 일찍 안 쫓았다고 마치 분이 안 풀리는 것처럼 한 다섯, 여섯 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요.

그리고 사실 동료 위원들끼리 예의를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도 작년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국민의힘 위원께서 저한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동료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말이 헛나왔나 보다, 초선 의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곱씹어 볼수록 사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들 각자가 참을 때는 참고 얘기할 때는 듣고 저는 그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청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 받아 주고 얘기를 들어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됐고 이렇게 결정적 한 방이 없어서 가 버리셨는데, 제가 지금 언론을 죽 스크랩해봤는데 ‘정은경에 국힘서도 미안한 마음, 주식·농지법 의혹 깔끔한 소명’ 제목들이, 이런 기사들이 막 뜹니다. ‘야당, 정은경 후보자 의혹 제기 불구 결정적 증거 못 내놔’.

제가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팩트인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이렇게 파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반드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청문법에 따라서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월요일 날 반드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 절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후보자께서 최종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은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로서 새겨들어야 할 충고와 격려말씀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소홀하고 부족했던 점이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빠르게 채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김선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최보운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서 7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그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21인)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소영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운  
한지아

#### ○청가 위원(2인)

강선우 이개호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 ○출석 공직후보자

정은경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감사관 민영신  
정책기획관 임호근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6)

이상 2건 7월 14일 회부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7월 17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025. 7. 1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 구분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2  |

| 구분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1  | -  | 1  |